



인권오름, 안녕!
인권오름 종간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 안녕!
인권오름 중간 자료집



인권오름, 안녕!

- 인권오름 중간 자료집

펴낸날 2016년 12월 7일
펴낸이 인권운동사랑방
디자인 응암동독거노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4길 49
전화 02-365-5363
팩스 02-365-5364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

차례

중간사 인권오름 마지막 호를 내며	04
중간의 변 인권매체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권운동의 길 찾기에 나서다	06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14
자료 인권오름에 연재된 섹션별 고정쪽지 및 기획 연재	17
좌담 인권오름의 의미, 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24
인권오름은 나에게 - 동료들이 전해준 이야기	34
내 인생의 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이야기	47

인권오름 마지막 호를 내며

11년 전 우리는 '다른 인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권이 더 이상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언어만이 아닌 시대였기 때문이다. 인권이 삶을 품게 되는 만큼 사람들이 인권에 가까이 다가설 것이라 기대했고, 그렇게 인권은 다시 민중들의 삶 한가운데서 굳세게 솟아오를 것이라 희망했다. 512호로 인권오름을 마감하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는지 돌아본다.

'가짜 인권'이 인권으로 행세하게 두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재판관 역할을 하며 국가정책에 인권 면죄부를 주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법치와 안전을 앞세워 국가폭력이 합리화될 때, 자유권은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였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이 정책의 문제로 이해될 때, 사회권을 들고 틈새를 내려고 했다. 인권의 지평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듣기와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반차별 담론을 베풀었다. 시대의 모순이 응축되어 터지는 사건들을 인권의 시선으로 짚을 수 있었다.

자신의 삶에서 인권을 길어 올린 이들 덕분에 인권오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가가 밀어붙이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강요된 체념을 거부했던 사람들. 온 세상이 기업의 편을 들어도 노동자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차별의 경험을 토로할수록 더욱 혐오에 직면했지만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우물투덜한 손, 고단한 발에서 빔어진 인권은 한국 인권운동의 한 시대를 증언하는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인권운동의 동료들이 있다. 낮은 목소리를 운동으로 조직하며 더욱 강한 외침으로 만들어온 이들의 노동에 기대어 인권오름은 창간의 다짐에 부끄럽지 않은 매체가 될 수 있었다. 인권오름을 떠나보내는 지금,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인권오름은 부족할지언정 언제나 열려있었다. 인권이 솟고 인권과 놀고 인권을 세

우고 인권에 나드는 터가 되었다. 소수자운동이 건네는 질문이 메아리를 얻었고, 자신의 운동을 인권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게 된 운동들이 용원을 얻었다. 인권운동이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영역의 운동과 만나고 어울리는 장(場)이 되었다. 서로를 지켜보고 복돋우며 운동들도 자라났다. 인권운동은 이미 인권단체의 운동을 넘어 더 넓고 깊어졌다. 인권이 담론으로 삶을 품기 전에도 투쟁과 연대의 현장에서 인권을 저항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됐다.

이대로도 충분한가 답해야 하는 때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답하기를 미뤘었다. 급격히 달라지는 온라인 매체 환경을 인권오름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글을 건네기에 급급하다 보니 누구의 손에 닿는지 헤아려보지 못했다. 점차 넓어지는 인권의 지평에서 움트는 인권을 다 담기에도 비좁았다. 부족함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어제의 수레바퀴로 오늘을 넘겨보려고만 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인권오름을 내려놓으며, 이 터를 가꿔준 모든 이들에게 미안함을 고백한다.

11년의 인권오름을 닫는 무개에는 인권하루소식의 시간도 고스란히 실려 있다. 멈추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그러나 꺾박받으면서도 이어져온 인권의 목소리들이 거리에서 만나 들불처럼 번지는 역사를 보는 지금, 우리는 다시 인권의 역사를 기억한다. 체제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하며 인권을 조직하겠다는 다짐을 몸에 되새긴다. 인간의 존엄을 세우는 도전은 다시 한 발 내딛는다.

2016년 12월 7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매체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권운동의 길 찾기에 나서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시린 칼날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내리치다

광주학살의 진상이 '역사의 심판'에 맡겨지는 가운데 고문후유증으로 아직도 치 떨리는 과거를 잊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수많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거짓과 진실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려져 현 시대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던 '유서대필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중략)……'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회, 우리는 감히 말하건대 소위 '문민정부'의 현실을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거래'될 수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고귀한 가치이며 민중에 의한 기본적 '통치이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인권하루소식 창간사(1993)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인권은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과 구타에 대한 반대, 자의적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저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특정 영역이 아닌 인간해방의 기치로 전반적인 삶의 권리를 '인권'으로 만들어내고자 했고, 이를 누구라도 쉽게 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인권하루소식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된 93년은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정권 초기 개혁적 조치에 한국 사회가 열광했던 때였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기 자행되었던 광주학살과 유서대필사건과 같은 잔혹한 폭력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고 반독재 민주화투쟁 너머, 삶의 존엄을 위협받는 민중들의 하루하루를 증언하는 언론은 없었다. 인권하루소식은 문민정부 아래 한국사회를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는 사회로 규정하고 인권의 시린 칼날로 인권유린 현장을 내리쳤다.

당시만 해도 생소하기만 한 인권의 언어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도언론이 관심을 두지 않던 인권현장의 소식을 취재하고, 인권침해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인권의 언어로 재해석해야 했다. 매일 일어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제시해야 했던 시기, 인권하루소식은 매체를 통한 인권운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인권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 운동이 될 수 있었고 인권하루소식의 기사를 언론사들이 취재원으로 삼고, 무수한 특종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 사회를 분석하고 운동으로 이어갈 새로운 언어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실력에도 인권하루소식은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신문에 안 나는 것 신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권침해의 현장을 발로 뛰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팩스 발행은 일간지로서 신속한 뉴스 전달을 가능케 했다. 운동단체, 언론사, 개인독자로 이루어진 독자층은 유료독자가 60%에 이르렀고, 매일 들어오는 팩스 신문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그날의 인권현안을 파악했다. 발 빠르게 인권현장을 취재하고 여러 소식을 매일매일 팩스를 통해 전송하지 않았다면, 생소한 인권의 언어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이 법률, 학술 영역의 전문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언어이고 권리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었다. 인권을 소개하고 인권운동을 세워내고자 했던 시기에 인권하루소식은 가장 효과적인 매체였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열했는가.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차 없이 내리칠 수 있도록 칼날을 시리게 베풀어 왔던가 스스로 묻는다. 인권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 수 있었고, 하루소식의 기사를 언론사들이 취재원으로 삼았으며, 무수한 특종을 냈다는 그 영광 뒤에서 우리는 변화된 인권의 환경을 마주한다. 인권침해를 일삼던 투쟁의 대상이었던 국가가 인권행위자로 나서고, 인권의 이름으로 이해관철을 위한 이전투구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인권하루소식 마감인사(2006)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그 어떤 운동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나간다. 이는 인권운동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으며 인권하루소식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인권의 대중화는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인권행위자로 나서게 된 것이다. 지배 권력이 인권을 자신의 언어로 휘두르게 된 시대에 인권소식을 전하고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된 현실에 맞서는 인권운동을 펼칠 수 없었다. 또한 2000년 전후로 보급된 인터넷은 팩스 신문이라는 인권하루소식의 발행유통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했다.

인권오름, 인권활동가들의 열정과 용기로 다른 인권, 진보적 인권을 일구다

인권의 언어가 널리 보급된 시대, 진보언론은 물론 주류언론에서도 인권소식이 빠르게 전달되는 시대, '경쟁력' 없는 작은 인권단체가 만드는 작은 매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던져봅니다……(중략)……단순히 인권의 언어를 보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이 기만당하는 어이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헐 인권'의 경계를 넘어 억압 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다른 인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권의 지평을

개척해온 활동가의 열정으로, 외면당한 인권을 분석하고 진보적 인권론을 일구어 나가는 데 애쓰겠습니다.

-인권오름 창간사(2006)

2000년대 초반은 인권운동에게 있어 다양한 부문의 성장과 대중적 확산의 시기이면서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제도화되고 권력화된 인권을 넘어서야 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은 진보적 인권운동을 주창하며 그 담론과 실천을 버리는 동시에 각 영역별로 성장해나간 인권운동의 힘을 어떻게 연결하고 서로 연대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03년 배달호, 김주익 열사 등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2005년 경찰폭력에 의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2004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 인권운동이 나아갈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인권단체들의 연대는 더욱 깊어졌는데 이는 2002년 인권활동가대회, 2004년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구성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새롭게 창간된 인권매체 '인권오름'은 이러한 인권운동의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를 매체를 통해서 펼쳐내고자 했다.

인권이 민중에 의한 기본적 '통치이념'이 되려는 커녕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이 기만당하는 어이 없는 현실 속에서 '다른 인권'의 내용과 실천을 만들어가고 진보적 인권운동을 일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것은 단지 '진보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다. 국가나 자본에 의한 직접적 폭력과 달리 충분히 '인권적', '합리적', '민주적'이라는 수사를 달고 이루어지는 구조적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고민되어야 했다. 이에 인권오름에서는 권리 영역별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권리 영역이 소개되기도 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인권적 접근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평화적 생존권, 보편의 이름에서 빠진 여성인권, 재산권 등의 고민과 활동이 소개되고, 비정규직 투쟁현안과 주거권, 건강권, 의약품 접근권 등 사회권을 구체화하고 풍부히 하는 기사들이 기획됐다.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안과 고민을 소개하거나 성소수자인권 등 반차별 운동의 쟁점을 다루기도 했으며, 탈시설 운동의 현재를 다뤘다. 권리 영역뿐만 아니라 권리주체에 따른 진보적 인권담론의 전개 노력은 장애, 성소수자, 이주, 청소년 운동과 같은 소수자운동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진보적 인권담론의 생산과 인권운동의 연대구축이라는 인권운동의 과제는 인권오름의 발행과 유통방식으로도 드러났다. 온라인 주간인권신문으로 발행된 인권오름은 인권하루소식에 비해 심층적 접근과 분석, 다양한 인권의제 생산, 기획기사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면에 구속받지 않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특성과 제한된 역량에서 속보성 기사보다는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석 기사에 집중하고자 일간이 아닌 주간 발행방식을 택한 결과였다. 발로 뛰는 취재기사가 중심이었던 인권하루소식과 달리 인권오름은 의제별, 사안별 심층 분석 기사가 중심을 이뤘다. 인권오름을 창간하면서부터 정책, 학술, 교육을 섹션별로 나눠 신기로 했고 발간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내 팀이었던 교육실과 인권연구소, 정책팀이 이를 담당했다. 2007년 인권연구소 창, 2008년 인권교육센터 등이 창립한 후에도 이들 단체가 각 섹션의 주요 꼭지를 담당했다. 섹션 이외에도 인권오름은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을 필진으로 섭외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매체에 머물지 않는 '인권운동의 매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인권단체들의 정기특지 신설, 여러 인권운동의 현안과 담론, 고민들을 담는 기획 속에서 인권매체로서 인권오름은 인권운동이 연결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인권매체로서 인권오름은 지금 어떤 인권운동을 하고 있나

인권오름은 '온라인 주간인권신문'이라는 발행 방식을 통해 진보적 인권담론의 생산과 인권운동의 연대구축이라는 과제를 구현해나갔지만, 인권오름을 구독하는 독자와의 소통-교류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간 지면신문이었던 인권하루소식은 500부 발송 중 60%가 유료 구독자였고, 이들 열혈 독자들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인권소식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학생회에서는 하루소식의 내용을 대자보로 써서 알리고, 노동조합에서는 하루소식을 조합원들이 다니는 곳에 게시했으며, 기성 언론에게 하루소식은 주요 취재원이었다. 이렇듯 인권하루소식 독자들은 구체적이었고 그 파급 효과는 분명했다. 인터넷이라는 개방적 공간에서 독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했던 인권오름은 오히려 인터넷 공간의 또 다른 특성인 익명성, 비대면성 속에서 구체적인 독자층을 상정하지 못한 채 기사 생산과 발행에만 집중하게 됐다. 즉 인권오름의 기사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누가 읽을지, 어떤 채널을 통해 유통할지, 어떻게 매

체의 효과를 확인할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발행되었다. 기사 생산부터 독자층의 소비, 이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형성, 반대로 이를 반영한 기사 기획과 생산이라는 일련의 '매체에 대한 유기적 사고'가 부족했던 것이다. 또한 편집인 1인이 기획과 편집을 맡는 등 매체에 대한 유기적 사고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인권오름의 발행구조와 편집역량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인권오름은 좋은 글들이 제때 읽히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매체라기보다는 인권관련 좋은 글이 모여 있는 '저장고'에 머물게 된다. 이는 인권오름이 매체 본연의 전달과 소통 기능보다는 기사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내용을 누가 생산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보적 인권담론의 생산과 인권운동의 연대구축'이라는 인권운동의 과제를 구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권오름의 매체로서의 한계는 인터넷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 뚜렷해진다. 인권오름 초기만 해도 인터넷 환경은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을 통해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개방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게시판,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온라인 환경이 구성되고 여전히 콘텐츠 생산이 중요한 시기였다. 인권오름 역시 인터넷 발행의 특성으로 지면 제약을 벗어나 분량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기사 생산이 가능하게 됐는데 주목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 매체 환경은 생산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기반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좀 더 빠른 소식, 좀 더 다양한 미디어 형식, 좀 더 핫한 이슈 등을 찾아서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독자적인 온라인 소통 양식을 만들어낸다.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식과 의견이 확산되고, 공감과 논쟁을 통해 여론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고받기 어려운 정보전달 형식인 인권오름은 온라인 소통 양식에 진입하지 못한 채, 단지 온라인 공간에 부유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인권운동의 성장과 분화 속에서 여러 인권단체들이 자체 웹진을 만들고 프레시안, 참세상, 미디어스와 같은 인터넷 언론에 인권활동가들이 쓴 기사가 게재되는 현실은 독자적인 인권매체로서 기능하고자 했던 인권오름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한다.

사실 온라인 매체로서 인권오름이 겪는 어려움은 소위 '뉴미디어 시대'에 주류 언론을 포함해 많은 매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문제는 인권하루소식부터 인권오름까지 오랜 기간 인권매체를 발행해 온 인권운동사랑방이 매체 환경의 근본적 변화 시기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며 변화를 도모할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인권오름은 1인 편집인 체계를 썼을 뿐 아니라, 인권운동사랑방 내에서 순환업무 중 하나

였다. 1인 편집인 순환체제에서 인권오름은 근본적인 평가나 장기적인 전망 구상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매체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과 전망을 가진 활동가를 조직적으로 발굴 지원하지 못한 채, 매체 발간 역량을 축적해오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뼈아프게도 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오름을 중간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매체로서 인권오름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인권'매체로서 인권오름이 펼치고자 했던 인권운동 과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진보적 인권담론의 생산과 인권운동의 연대 구축'이라는 과제의 현재적 모습은 무엇인가? 혹은 인권매체를 통해 지금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인권운동의 전략은 무엇인가?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알리고 전달할 매체가 아닌, '인권'매체는 바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인권오름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적절한 '매체' 전략, 발행 역량의 부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인권오름 발행을 책임져온 인권운동사랑방의 또 다른 고민 지점이다.

인권오름을 마무리하며 인권운동의 길 찾기에 나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매체를 둘러싼 저 질문들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한다. 다만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오름을 통해 일조하려 했던 '진보적 인권담론의 생산과 인권운동의 연대구축'이라는 목표가 기존 방식대로는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권의 대중화와 인권운동의 성장과 분화라는 조건 속에서 나름의 전망을 찾았던 목표는 '운동 속의 인권운동'이라는 고민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 우리 모두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인권의 위기가 제도화와 대중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이거나,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가 '인권'을 더욱 전문적, 급진적으로 버리고 주장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창립되고, 인권하루소식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때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일단락되고 문민정부가 등장한 때이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고 투쟁했던 집단적 운동이 만개했던 때이기

도 했다. 인권하루소식이 전했던 '인권'뉴스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렇게 인권은 운동의 언어가 될 수 있었다.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지면서 인권이 대중화되고 제도화되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 인권을 운동의 언어로 만들 집단적 운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인권은 보편타당한 권리이지만 언제나 현실 속의 인권은 특정 사회, 사람과 분리 불가능한 구체적인 형상을 띤다. 인권을 척도로 사회를 바라만 본다면 평가하고 인권점수를 매기는 데 그친다. 하지만 이곳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 속에서 인권을 구성하고 길어 올린다는 것은 결국 '운동'을 조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집단적 권리 주체들의 역사로서 '운동'의 역사가 인권의 역사라는 점, 인권의 위기는 권리 주체인 '운동'의 위기에서 기인하고 이는 '운동'을 조직할 때 극복가능하다고 보았다.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게 바로 '인권'을 조직하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인권체계를 기초로 구성된 현행 인권체계나 인권운동이라고 명명된 특정 운동질서에 갇히지 않으면서 지배체제에 맞서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출발해 진보적 인권을 구성해나가는 과제를 우리 자신에게 던졌다.

언제나 머릿속 고민은 현실보다 한 발 늦는 법. 90년대 중반 이후 당사자 인권운동으로 조직되었던 장애인과 성소수자 운동은 이제 인권운동을 넘어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운동과 이미 활발히 연대하고 있다. 인권운동 진영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연결을 도모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면, 지난 몇 년은 보수 정권의 앞뒤 가리지 않는 폭력 앞에서 여러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고 연대의 경험을 쌓아온 시기였다. 용산, 강정, 쌍용차, 한진, 밀양, 세월호, 민중총궐기……그렇게 만난 투쟁과 연대의 현장에서 우리는 운동이 조직되고, 권리가 외쳐지고, 인권이 조직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바로 그곳에서 지배체제에 맞선 운동을 조직하고 인권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오름은 인권활동가들,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료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 온 매체였다. 발행을 책임져온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오름 종간을 결정하는 지금, 인권오름을 함께 만들어온 수많은 동료 활동가들에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1993
인권하루소식 창간,
팩스 신문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다

1993년 8월, 장기수 후원 운동을 하다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간 활동가를 구명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저기 팩스를 보내다 팩스신문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 달간 24호의 준비호를 발행하며 편집기술상의 문제점, 기사취재 방법상의 문제점, 발송 작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9월 7일 팩스로 매일 400곳에 배달되는 신문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했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회에서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 없이 '시린 칼날'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차 없이 내리치겠다."는 의지를 창간사에서 밝혔다.

새로운 인권매체를 준비하며
인권하루소식 3000호로
중간하다

인터넷이 대거 보급되는 환경에 맞춰, 보다 깊이 있는 기사를 담기 위해 팩스 신문을 폐지하고 2005년 2월 1일 2745호부터 인터넷판 발행을 시작했다. 인권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 운동이 되지 않으며 국가가 인권행위자로 나서고 자신의 이해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시대에 진보적 인권을 더욱 날카롭게 버려나가야 했다. 그 사이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소식을 전파할 공간은 더 넓어졌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인권하루소식만의 속보성을 '기쁘게' 다른 매체들에 넘기기로 했다. 인권 전문 매체의 존재 이유는 여전하기에 달라진 상황에 맞는 새로운 매체를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12년 6개월 간 발행해온 인권하루소식을 2006년 2월 28일 3000호로 중간했다.

2006년
온라인 주간매체
인권오름 창간하다

2006년 4월 26일 온라인 주간인권소식 '인권오름'(매주 수요일 발행)을 창간했다. 흠뻑의 인권현실을 헤치고 더욱 낮게, 더욱 깊게, 더욱 긴 호흡으로 인권을 울리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제주도의 오름처럼 인권이 굳세게 솟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오름이라 이름 지었다. 창간사에서 △'갈탄 인권'의 경계를 넘어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다른 인권'을 이야기하겠다, △같은 소식도 다르게 풀어보고 새로운 인권의 영역을 개척하며 도전하기와 경계 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민중들의 삶 가까이, 듣지 못한 외면당한 목소리들을 나지막이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슷울터(정책 섹션), 놀이터(교육 섹션),

100호를 맞이하며
인권운동 공동매체의
전망을 그리다

세움터(학술 섹션), 나들터(사는 이야기 섹션)의 4개 섹션으로 구성하여, 섹션별 성격을 담은 고정꼭지들을 기본 배치하고 기획연재, 인권이야기 등을 비섹션 기사로 담았다. 2007년 창간 1년을 맞아 독자와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인권오름이 가야 할 길을 다시금 직시했다.

인권운동을 연결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다

창간 2년을 앞두고 매체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진보적 인권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만드는 매체, 그래서 서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매체로 방향을 잡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주간인권소식 인권오름'에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으로 소개말을 바꿨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단체들과 기획연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독자모임을 시작하고, 인권침해의 현장을 잘 전하기 위한 활동가 글쓰기 교실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시도들은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매체 그 이상이 되기 위한 노력들로 인권오름은 다양한 인권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연결되고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여러 단체 활동가들의 기고와 참여 덕분에 인권오름은 진보적 인권담론을 풍성하게 키워가는 매체가 될 수 있었다.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현안을 인권의 시선으로 뚫어보며 시대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인권운동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관점에 기초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었다. 제도화의 흐름 속에서 현장과 호흡하는 인권교육, 인권연구의 자리를 지키며 넓힐 수 있었다. 소수자인권운동의 작은 목소리들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삶의 조각들로부터 운동의 담론을 버리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인권활동가들의 글쓰기 도전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인권오름은 여러 활동가의 참여 속에 인권운동이 연결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기꼭지 개발과 콘텐츠 안정성을 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단위인 각 권리영역별 팀들도 연재기사 기획을 하며 활동과 고민을 외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단체뿐 아니라 개별 기고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인연은 다루는 주제나 영역이 더욱 풍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에서 인권

인권매체로서의 전망과 역할을 고민하다

오름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2년에 SNS 연계기능을 추가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심도 깊은 주제의 인권기사를 매주 기획하고 발행하는 것은 전문적인 매체 운동의 역량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매체를 발행해온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러한 역량을 조직적으로 키워내지 못했다. 주간매체로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기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동안 구성했던 섹션별 고정꼭지가 감소하면서 섹션 구분도 점차 모호해졌다. 발행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잦아졌고 매주 발행해야 하는 부담에 혁혁대기도 했다. 그럴수록 인권운동의 전망 속에서 인권오름의 위치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집중해서 논의하지 못했다.

2016년 인권오름 중간을 결정하다

인권오름이 '매체'로서 어떤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다. 진보적 인권운동의 담론을 생산하고 인권운동의 연대를 복돋고자 했던 인권오름의 목표는 기존 방식대로는 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담론을 전문적, 급진적으로 버리는 것만으로는 인권의 위기에 맞설 수 없었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인권오름의 제한된 역량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인권오름 중간을 결정하며,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하는 인권운동이 되자는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의 다짐을 되새겼다. 2016년 12월 512호로 인권오름을 중간한다.

자료 인권오름에 연재된 섹션별 고정꼭지 및 기획연재

■ 슷을터

발행 기간	꼭지 제목	꼭지 설명	집필
06년 04월 ~07년 02월	쟁점수다	논쟁을 만들어가는 솔직담백 수다	인권운동사랑방외여러 단체
06년 04월 ~07년 02월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포비와 함께 인권정세 따라잡기	인권운동사랑방
06년 04월 ~현재	벼리	인권의 눈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인권운동사랑방외여러 단체
07년 08월 ~07년 10월	제제의 박쥐놀이	제제와 함께 인권정세 따라잡기	인권운동사랑방
08년 03월 ~09년 02월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정세를 훑기	인권운동사랑방
09년 04월 ~10년 01월	발에 비친 인권풍경	인권침해의 현장을 찾아가는 취재기사	인권운동사랑방
13년 04월 ~현재	열려라 참깨	우리의 알 권리를 향한 외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
14년 05월 ~현재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그림과 글로 인권침해와 과거사를 담다	전승일

■ 놀이터

발행 기간	꼭지 제목	꼭지 설명	집필
06년 04월 ~현재	인권교육, 날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권교육 이야기	인권교육센터 '들'
06년 05월 ~07년 05월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와 자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06년 05월 ~10년 01월	뛰어보자 풀짝	어린이의 눈높이로 전하는 인권소식	인권교육센터 '들'
06년 05월 ~10년 03월	내 말 좀 들어봐	어린이, 청소년이 말하는 인권이야기	인권교육센터 '들'
08년 05월 ~09년 03월	학생인권 마술피리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위한 학생인권 가이드라인	인권교육센터 '들'
09년 04월 ~11년 03월	페미니즘(in)걸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페미니즘과 청소년니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0년 04월 ~현재	어린이책 공룡트림	인권의 감수성으로 동화를 읽다	인권교육센터 '들'

13년 04월 ~14년 03월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의제들을 하나하나 풀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 모임
14년 05월 ~현재	웰컴투, 여덟살 구역	'책 읽어주는 언니', 여덟살 아이들과 인문학 하다	교육공동체 나다
16년 06월~16년 07월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억압의 뿌리인 나이주의를 분석	청소년운동 우물모임

*인권교육센터 '들'은 인권오름 창간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내 인권교육실로 기획과 집필을 맡고 있었다.

■ 세움터

발행 기간	꼭지 제목	꼭지 설명	집필
06년 05월 ~06년 09월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인권연구소 '창'
06년 05월 ~10년 12월	외침	한국 인권의 역사 속 당사자 목소리를 전한다	인권연구소 '창'
06년 05월 ~07년 10월	뒤척이다	인권의 눈으로 삶을 고민하는 이들의 뒤척임	다수 인권활동가
06년 05월 ~15년 03월	인권문헌읽기	인권의 역사를 엮어나간 주요 문헌을 오늘 펼친다	인권연구소 '창'
06년 06월 ~06년 08월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한국보다 일찍 싹튼 일본의 반(反)기지 운동 소개	이경주
06년 06월 ~07년 08월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영화에서 읽는 인권이야기	서울인권영화제*
06년 11월 ~07년 02월	인권연구_창	국내외 인권연구논문 함께 살펴보기	인권연구소 '창'
07년 03월 ~11년 11월	세계의 인권보고서	해외 인권보고서 번역 소개	인권연구소 '창'
09년 08월 ~09년 12월	우리 시대의 인권	1993년 이후 한국 인권의 역사	인권연구소 '창'
11년 04월 ~14년 08월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해외의 경험을 거름 삼아 자라는 인권나무	나이테
12년 09월 ~현재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 활동을 인권의 눈으로 분석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13년 04월 ~14년 02월	공	반성매매와 성노동을 동시에 긍정하며 공공거리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15년 05월 ~현재	인권단어장	대화로 쉽게 풀어보는 인권단어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구소 '창'은 인권오름 창간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로 기획과 집필을 맡고 있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인권오름 창간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내 인권영화제팀으로 기획과 집필을 맡고 있었다.

■ 나들터

발행 기간	꼭지 제목	꼭지 설명	집필
06년 05월 ~07년 03월	와글와글 깔깔	풍자로 풀어내는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06년 05월 ~08년 02월	삶_세상	가난한 사람들의 '살아가고, 살아지고, 살아내는' 삶	인권운동사랑방
06년 05월 ~11년 04월	디카로 물구나무	찰칵,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 뒤집기	인권운동사랑방
06년 05월 ~13년 03월	상상고고	이야기가 있는 인권만화	고은채
06년 07월 ~06년 08월	번역-나프타(NAFTA)인 권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사회권 실태	인권운동사랑방
07년 05월 ~08년 01월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아니꼬운 세상에 일침을! 아니꼬운 상장을!	인권운동사랑방
08년 03월 ~08년 07월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시설생활인들의 외침과 탈시설운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8년 03월 ~08년 10월	삶_세상2	차별받는 나, 차별하는 나, 그리고 차별하는 사회	인권운동사랑방
08년 04월 ~08년 09월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레즈비언활동가들의 삶과 고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9년 04월 ~09년 11월	삶_세상3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자유권' 현실 들여다보기	인권운동사랑방
09년 04월 ~현재	책의 유혹	인권활동가들의 삶이 묻어나는 책 이야기	다수 인권활동가
10년 05월 ~11년 04월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인터넷, 정보, 기술, 감시 등등 인권/운동의 새로운 경계	조동원
11년 11월 ~16년 01월	언니네 방앗간	페미니스트 언니들이 여성주의 이슈로 입방아 찧다	언니네네트워크
13년 05월 ~현재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 찌아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박김형준

■ 비섹션_고정꼭지

발행 기간	꼭지 제목	꼭지 설명	집필
06년 04월 ~현재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만평	이동수
06년 04월 ~현재	인권이야기	다양한 영역의 필진들이 전하는 인권이야기	다수 인권활동가
06년 05월 ~07년 12월	논평	2006~2007년 발표된 인권운동사랑방의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08년 10월 ~09년 04월	자유발언대	인권에 관해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다	다수 인권활동가

09년 07월 ~10년 04월	막말의 시대	잇속을 감춘 거지 논리를 깨자	인권운동사랑방
10년 05월 ~12년 02월	이주의 인권수첩	일주일 동안의 인권 소식 요점 정리	인권운동사랑방
13년 03월 ~현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날카로운, 때로는 축축한 인권운동사랑방의 목소리	인권운동사랑방

■ 비섹션_기획연재

발행기간	꼭지 제목	꼭지 설명	집필
06년 04월 ~06년 06월	주거인권학교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 모두의 권리를 외치다	인권운동사랑방
06년 05월 ~07년 02월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현지 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아시아인권 현안	아시아인권활동가
06년 07월 ~07년 03월	가라가라 빈곤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의 대안 모색	인권운동사랑방
06년 09월 ~06년 12월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 안한다	국제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소개	평화운동가
06년 09월 ~07년 06월	내 삶의 불복종	삶을 바꿔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	다수 인권활동가
06년 12월 ~06년 12월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년간의 역할을 평가	다수 인권활동가
07년 04월 ~07년 05월	인권오름 첫들, "인권오름과 나"	창간 첫들을 맞아 독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독자들
07년 06월 ~07년 07월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동자동 쪽방 거주민들과 건강권을 모색하다	인권운동사랑방
07년 09월 ~07년 10월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을 돌아보다	다수 인권활동가
07년 09월 ~07년 11월	선거 높음에 파론한 인권 법안	17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한 인권 법안	다수 인권활동가
07년 10월 ~08년 01월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반차별운동 활동가들이 짚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다수 인권활동가
07년 11월 ~07년 11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유서대필조작사건'의 배경과 경과, 남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07년 11월 ~08년 01월	죽음을 기억하라	산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죽음에 대한 기록	다수 인권활동가
08년 03월 ~08년 04월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임파워먼트라는 열쇠말로 주체형성을 꿈꾸다	인권운동사랑방
08년 03월 ~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60주년 맞은 세계인권선언, 현재적 시각에서 분석	인권연구소 '창'
08년 04월 ~08년 04월	불운의 스타 글리벡	글리벡을 통해 본 의약품접근권의 문제	다수 인권활동가
08년 04월 ~08년 05월	교과서를 던져라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다	전쟁없는 세상

08년 05월 ~08년 05월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상영관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맞서다	다수 인권활동가
08년 05월 ~08년 07월	발로 걷는 평화교육	청소년들과 함께 한 평화수업 이야기	경계를넘어
08년 07월 ~08년 10월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다양한 주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와 질서	인권운동사랑방
08년 10월 ~08년 11월	경제위기와 인권	경제위기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하다	다수 인권활동가
08년 10월 ~08년 12월	2008 인권선언운동	2008 인권선언운동의 고인과 영역별 선언 소개	다수 인권활동가
08년 12월 ~09년 05월	미디어와 레즈비언	미디어에 비쳐진, 가려진 레즈비언의 모습과 인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9년 03월 ~09년 03월	페미니즘, 길을 묻다	'젠더,섹슈얼리티,계급', 페미니스트들의 고민	다수 인권활동가
09년 05월 ~09년 06월	느껴봐-인권영화제	인권영화제의 경험과 의미를 나누다	다수 인권활동가
09년 06월 ~09년 11월	차별, 다르게 말하기	피해자화하지 않으면서 차별을 이야기 하기	반차별공동행동
09년 07월 ~09년 07월	2009, 한국사회 노동권	노동에 대한 권리, 차별과 자본의 벽 앞에서	다수 인권활동가
10년 03월 ~10년 07월	가족정책 토크아보기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다른 가족정책포럼 중계	가족구성권연구모임
10년 05월 ~10년 06월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인권영화제 15주년,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다수 인권활동가
10년 07월 ~10년 10월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중계	반차별공동행동
10년 09월 ~10년 10월	강은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	4대강 사업, 농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10년 10월 ~10년 11월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청소노동을 둘러싼 차별과 노동의 위계	인권운동사랑방
11년 03월 ~11년 04월	'미신고 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감	'미신고 집회'에 대한 처벌의 문제와 대안	인권운동사랑방
11년 03월 ~11년 11월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운동, 노동운동, 환경/생태운동이 만나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11년 04월 ~11년 05월	나와 당신의 거리	15회 인권영화제 상영일별 주제에 관한 이야기	다수 인권활동가
11년 04월 ~11년 05월	핵심화를 넘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다수 인권활동가
11년 05월 ~11년 06월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이야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우리사회의 차별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1년 10월 ~11년 12월	나의 대학거부	투명가방끈들의 불복종운동	투명가방끈모임
11년 11월 ~11년 11월	막개발의 첫단추	개발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파헤친다	인권운동사랑방
11년 11월 ~11년 12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인터넷 북한게시물 검열에 대응하며 든 고민	인권운동사랑방

12년 01월 ~12년 0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돌아보기	제정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건네는 이야기	다수 인권활동가
12년 03월 ~12년 05월	빈곤+청소년=똥똥?	'빈곤청소년'을 둘러싼 편견에 질문을 던지다	인권교육센터 '들'
12년 04월 ~12년 07월	비범한 가족이야기	변화된 가족-공동체-관계를 모색하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
12년 04월 ~12년 08월	운디드니_강정	강정지킴이로 살면서 아팠던 순간을 카 메라에 담다	이우기
12년 05월 ~12년 05월	사람으로 살다	17회 인권영화제를 맞아 투쟁장소와 의 미를 소개	다수 인권활동가
12년 11월 ~12년 12월	정치밖 정치짓	정치 바깥에서 정치적 권리를 넓히기 위 한 모습	다수 인권활동가
13년 05월 ~13년 05월	삐딱선(船)	삐딱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의 실천	다수 인권활동가
13년 05월 ~13년 07월	26년,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 현 재적 쟁점	다수 인권활동가
13년 09월 ~13년 10월	도란거리는 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을 맞는 사랑방 활동가들의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13년 09월 ~13년 10월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두물머리 싸움 1년 후의 소식을 전하다	두물머리발전위원회
13년 12월 ~13년 12월	반공반복의 시대	중복물이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고 비판	다수 인권활동가
14년 05월 ~14년 09월	내가 사는 그집	병역거부자의 수감일기	들개
14년 06월 ~14년 08월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 양병원	중증에이즈환자장기요양사업의 문제와 맥락 짚기	수동연세요양병원대 책위
15년 01월 ~15년 02월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 기억해야 할 것과 밝혀야 할 진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원회
15년 01월 ~15년 12월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사회에 대한 질문들	416인권선언제정특별 위원회
15년 10월 ~15년 10월	임금에 대한 질문	임금을 인권으로 재구성하는 실마리	인권운동사랑방
15년 11월 ~15년 12월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비판과 제안	십대섹슈얼리티인권 모임
15년 12월 ~16년 02월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 하다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다각도로 살피기	장애여성공감
16년 03월 ~16년 04월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16씨네토크에서 나눈 인권이야기	416인권선언제정특별 위원회
16년 07월 ~16년 08월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 벌법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입 법과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16년 10월 ~16년 11월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 인권보장체계	HIV/AIDS 강제 검사, 감염인과 이주민 에 대한 낙인	다수 인권활동가
16년 11월 ~16년 11월	인권오름 중간 좌담회	동료활동가들과 인권오름 11년을 돌아 보다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이야기 역대 필진

*인권하루소식에서 시작한 [인권이야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찾고 전하는 대표적인 고정꼭지입니다. 독자
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활동가들에게도 한 번쯤은 알아보고 싶은 꼭지라고들 합니다. 인권오름에서 [인권이야기] 필진으
로 함께 했던 분들의 이름을 남깁니다. 시기별 가나다 순으로, 연재 당시의 소개말을 썼습니다.

1~44호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민정(이주여성인권연대), 디디(한미 FTA반대 에프키라),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박숙경(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정태욱(아주대 법학
교수),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계삼(밀양 밀성고 교사), 이미나(교육공동체 두리하나 교사), 한우지(성전환자인권연
대 지령이)

45~95호 김명준(미디액트),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이동현(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유성(인권운동사랑방), 이류한승(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상수(새사회연대/한남대 법학 교수), 자주(한국성폭력상담소),
정은희(문화연대), 지은(경계를넘어),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홍기빈(금융경제연구소)

96~147호 강동진(정보전략회의(준)/빈곤사회연대), 김일숙(인권운동사랑방), 달군(진보네트워크), 랑(민주노동자연대), 명숙(인
권운동사랑방),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수(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아해(인권운동사랑방), 여욱(전쟁없는세
상), 이상윤(건강연구공동체), 이현석(청년환경센터), 하승우(지행네트워크)

148호~196호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디온(빈마을), 류미레(다큐멘터리 감독), 만(인권운동사랑방), 박기호(한국계
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양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오이(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이상재(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재영(인
권운동사랑방), 이창림(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초코파이(인권운동사랑방)

197~244호 김옥자(『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편집인),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녹우(인권운동사랑방), 루인(트랜스젠더
활동가), 서녕(인권운동사랑방), 소모뚜(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 아요(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안태호(예술과
도시 사회연구소), 은진(인권운동사랑방), 이재용(꽃꽃세상을 위한 모임), 정민경(진보네트워크),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

245~292호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김명희(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소연(금속노조 기동분회), 몽(언니네트워크), 박혜경(사회적
기업에서 독서장애인을 위한 책을 만드는 이), 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세주(인권운동사랑방), 승욱(두물머리), 엠건(청소년인
권활동가네트워크), 윤미(인권운동사랑방), 풍경(전북평화와인권연대), 훈창(인권운동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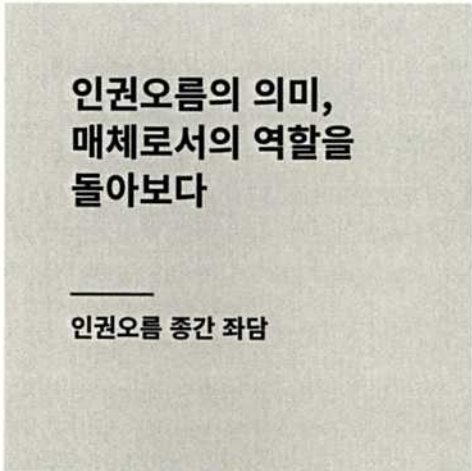
293~340호 깨비(공공운수노조), 구석진(인권운동사랑방), 딸기(평화바람), 모량(인권교육센터 '들'), 배충무(장수마을 주민/동네
목수), 오리(동성애자인권연대), 슈아(동자노동사랑방), 용석(전쟁없는세상/출판노동자), 윤경(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록(인권
운동사랑방), 진남(교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코파이(인권운동사랑방)

341~388호 고이선선(녹색당), 구교현/박하루/윤가현/하윤정(알바연대), 김이찬(자구인의 정거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
연합회), 만선(인권운동사랑방), 박준도(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영서(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오병일(진보네트
워크/정보공유연대Pleft), 은두(천주교인권위원회), 최현정(트라우마센터 사람마을), 토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
쿨), 홍이(인권운동사랑방)

389~436호 김상(사회적기업 노란들만), 김현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용(인권운동사랑방), 박사라(홀리스행동), 박진우(서울경
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종걸(한국계이인권운
동단체 친구사이),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최재훈(경계를넘어), 한남(인권교육센터 '들')

437~484호 조아라(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나어릴때(불안정노동철폐연대), 날맹(인권교육센터
'들'/전쟁없는세상), 동주(광주인권운동센터), 띠라(다산인권센터), 류미경(민주노동), 박석진(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비파나(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이현주(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정훈(수유너머N),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직업환경의학전문회)

485~512호 가원((사)유엔인권정책센터), 낙태(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창호(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영구(간호사),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임용현(사회변혁노동자당), 하금철(장애인인터넷온론 비
마이너 편집인)



2006년 4월 26일 창간했던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을 2016년 12월 7일 512호로 종간한다. 인권오름 종간을 앞두고 필자이자 독자였던 인권활동가들과의 좌담을 가졌다. 지난 10년 <인권오름>은 무엇을 일구었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까? 좌담에서는 △인권오름과의 인연과 종간에 대한 소회, △인권/운동이 드러나고 만나는 장이었던 인권오름의 성과와 한계, △인권/운동과 매체환경의 변화, △종간 이후 고민되는 운동과 매체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다. 동료들의 애정 어린 이야기를 전한다.

일시

2016년 11월 18일

진행 및 정리

명숙 <인권오름> 편집인이다.

좌담

강곤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의 편집인이었다. 인권매체에 관심이 많다.

낙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다. '인권이야기' 현재 필진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로 자유권운동에 고민이 많다.

쥬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로 청소년 관련 기획연재에 많이 참여했다.

좌담 ①

인권오름의 의미를 돌아보다

- 인권활동가들이 만든 매체

역사의 뒤편길로 가는 인권운동의 한 시대

명숙: <인권오름>을 매주 꼬박꼬박 잘 내다가 갑자기 왜 종간하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종간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나?

쥬리: 몇 달 전부터 종간 얘기를 듣고 매 주 잘 나오던 <인권오름>을 왜 종간하지 싶었고 아쉬웠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논의한 내용을 듣고서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고민이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오름이 종간하면 청소년운동 이야기들은 실어줄 데가 있을까 싶다. 청소년문제는 좀 예민한 글이면 보통 언론매체들에서 잘 받지 않기도 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해서…….

강곤: 울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잡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왜 종간하지 하는 생각은 안 들었고 아쉬웠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인권오름> 종간이 아쉬운 게 아니라 <인권하루소식>의 명맥이 끊기는 게 더 아쉬웠다. 노동과 통일밖에 모르다가 인권이라는 낱말을 처음 접한 게 인권하루소식이다.

낙타: 꾸준히 나오던 <인권오름>을 종간한다고 해서 매우 놀랐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오름이었는데 그게 역사의 뒤

안길로 간다고 해서 아쉬웠다.

장여경: 당연히 아쉬웠다. <인권하루소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니 1993년부터 무려 24년이 아닌가. 인권운동의 한 시대가 지는 것 같다. 진보넷도 매체적인 실험을 많이 해본 편인데 사회운동 매체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소수자의 목소리

명숙: 각자 소회를 밝히면서 <인권오름>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한 것 같다. 오름이 했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 성과와 한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강곤: <인권오름>에서는 다른 데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여성이라든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문가나 기자들의 목소리를 거치지 않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한다. 그것도 한군데 모아서 실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오름에 두 번 정도 글을 쓴 거 같다. 다른 매체에서도 서평 같은 거 자주 청탁받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름에 쓰는 게 제일 긴장됐다. 첫 번째는 안면 있는 독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두 번째는 이 매체의 독자들은 인권감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 싶었다.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할 때도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우리 잡지에 글을 쓰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게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이 아닐까.

낙타: <인권오름> 끄트머리에 와서 인권 이야기 필진이 된 건데, A4 한 장 쓰는데도 꽤 걸렸다. 누가 읽을지 짐작되니까 이런 걸 써도 되나, 이 단어가 맞나, 고민하게 됐다. 인권연 구소 창 의 류은숙 님이 썼던 '인권단어장' 같 은 걸 읽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쓴 인권의 언 어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들이 있어서 좋았다. 성소수자운동 안에만 있 다 보니 다양한 연대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 고 다양한 운동의 이슈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 한다. 이런 현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았나 싶다. 기존 언론에서 기자들이 다루주는 느낌이란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이 적어주는 느낌이란 확연히 달랐던 거 같다. 날 것의 느낌이 생생하게 있던 것도 같고. 그런 느낌과 동시에 신중하게 뭔가를 썼 다는 느낌도 있다.

부문과 의제의 연결

강곤: <인권오름>은 단체들에서 내는 웹 진이나 소식지보다 열려있다. '전쟁없는세상' 소식지나 '친구사이' 웹진은 회원 대상이지만 오름은 다르다. 오름을 보면 '진보넷'도 볼 수 있고 '발바닥'도 알 수 있다. 여러 의제들을 한 곳에 모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여경: 인권운동사랑방이 냈던 <인권하 루소식>이나 <인권오름>은 한 단체의 기관지 가 아니라 매체 자체로 담론장 역할을 했다. 개

인적으로는 전업 활동가로 살겠다고 마음먹었 던 계기 중 하나가 하루소식이다. 네티즌으로 인터넷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 초로 만난 기자가 하루소식 기자였다. 나중에 기사를 봤는데 앞에 고문이 어찌고 누가 어떻 게 수감됐다고 어찌고 하는 엄혹한 얘기들 중 간에 우리 얘기가 있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인권운동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됐다고 할까? 나는 요만큼 하고 있었는데 사회가 어떻 고 하는 그 중에 우리 의제가 있어 신기했다.

강곤: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 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 보내주는 소식지 를 받는 사람은 양심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못 받으면 양심수가 아닌 거고. 그런 것처럼 <인권하루소식>에서 다뤄지면 인권문제가 되는 권위가 있었다. <인권오름>으로 넘어오 면서 그 정도의 권위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오름 에 있어서는 부문과 부문의 연결, 만남 이런 의 미가 있었던 거 같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라든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라든지. 『세상 을 두드리는 사람』도 시도는 했지만 종이잡 지의 무거움 때문에 담지 못한 것을 <인권오름 >은 담았다. 종이잡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인터넷 웹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부문운동 간의 연결, 이런 건 하루소식보다 오름이 더 뛰 어났다고 본다.

<인권오름>으로 전하고 배우는 인권

낙타: 활동을 막 시작했던 2012년 인권 에 관해서 무지렁이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다

가 활동을 시작한 건데 LGBT가 성소수자의 약 자인지도 몰랐을 정도였다. <인권오름>에서 오는 소식들은 단체소식들이랑은 확실히 다르 다. 읽히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인권활동하기 전에 했던 활동이나 사안들에 대해서도 배운 다. 개인적으로 언론이라기보다는 교과서 느 낄이랄까. 특히 청소년인권이나 장애인권에 대해 접하고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됐다.

주리: 2011년부터 청소년운동이랑 성소 수자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그전 운동의 역사는 모른다. 그래서 오름의 전신인 <인권하 루소식>을 팩스로 배포했다고 해서 참 참신하 구나 생각했다. 근현대사도 모르는 게 많다. 그 렬 때 제일 신뢰하고 입문할 수 있는 언어로 정 리된 게 <인권오름>이었다. 인권오름 홈페이지로 들어가 전체기사 보기에서 '형제복지원' 같은 것을 검색해서 본다. 다른 매체에 실리는 기고 글도 있지만, 오름은 인권운동하는 활동 가들의 글을 모아두는 곳이고 그런 점에서 제 일 신뢰했던 매체가 아니었나 싶다.

장여경: <인권하루소식>과 <인권오름> 이 다르다는 느낌을 활동을 쉬다 복귀했을 때 받았다. 강곤이 말한 것처럼 하루소식에서 다뤄줄 때 인권운동의 동지로 호명되는 느낌이 라면, 오름에서 다루주는 건 달랐다. 일종의 권 위가 완전히 해체된 느낌이랄까. 당사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도록 공간을 열어준 느낌을 받 았다.

인권담론을 잘 버려왔는가

명숙: <인권오름>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 기해보자. 오름에서 다른 글들이 잘 읽혔나. 또 진보적 인권담론을 잘 버렸다고 생각하는가.

주리: 내가 인권활동가의 언어에 익숙해 서인지 개인적으로는 잘 읽혔다.

낙타: <인권오름>의 글 중 내게 다소 정 보가 부족한 다른 인권운동 영역의 글들은 아 무래도 한 번에 읽히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는 더욱 읽기 힘들었다. 그 래도 내 경우에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니 컴 퓨터로 메일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름을 접하게 되었다.

장여경: 최근에 <인권오름>을 잘 안 읽 게 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다. 먼저 매체환경이 변해서 메신저나 SNS로 대부분의 글을 읽기 때문이다. 활동하면서 기자들한테 메일을 2천 통 넘게 뿌리지만 거의 피드백이 안 온다. 메신 저나 SNS로 보내야 피드백이 온다. 미디어 환 경이 확 달라져서다. 내 자신도 메일함을 잘 안 열어보니까. 또 오름에 당사자들이 쓴 글이 많 다고 했는데 자유권 비중은 전에 비해 많이 줄 어든 거 같다. 관심이 있을만한 주제는 많이 줄 어들어서 굳이 찾아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던 거 같다. 자유권은 모두가 당사자라고 생각하 기도 하고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성으로 조직되는 주제는 아니다. 반차 별이나 사회권 주제하고는 다른 거 같다.

그리고 <인권하루소식> 만들 때랑 다르게 표현의 자유 이슈를 주류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인권오름>의 지향이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인권담론을 더 진보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할 때 자유권은 좀 부족했다. 그건 사랑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단체도 정보인권을 다루는데 네티즌들이나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뒤늦게 따라가는 형편이다. 인권운동 자체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만약 오름이 진보적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자유권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면 형사처벌주의의 강화를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건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다. 예를 들면 성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DNA를 수집하고 전자발찌 등 국가의 전자감시 장치가 많아지고 CCTV 도입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자유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한다. 그걸 하나하나 쫓아가기보단 형사처벌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이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건 인권운동이 겪는 어려움이다.

주리: 개인적으로 <인권오름>은 청소년 인권의 부분에서는 진보적 인권담론을 잘 버렸다고 평가한다. 지금 오름에서 청소년인권 관련 연재를 한 게 2006년 '청소년운동 길을 묻다', 2008년 '학생인권 마술피리', 2009년부터 연재한 '페미니즘인(in)걸', 2011년 '나의 대학거부', 2012년 '빈곤+청소년=쫓쫓쫓'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토크아보기', 2013년 청소년 성적 권리에 대해 다룬 '미성숙폭동', 2015년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2016년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등이 있

다. 이 연재들을 보면 인권운동에서 청소년인권 관련 의제들, 담론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한눈에 보인다. 청소년인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다른 매체에 글을 기고할 때는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를 의식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글 자체가 담론의 성장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오름은 주 독자층이 인권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쓰니까 글들이 그런 성장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장여경: 운동을 우리한테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대중을 만나고 싶어서 <네트워커>라고 종이로 된 월간지를 만든 적이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회과학 서점이 조금 남아있었고 가판에서 뿌리기도 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기에 우리는 많이 부족했다.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다. 한 달의 절반은 글을 쓰기 위해 찢절했다. 또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글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써야했다. 밖에서 지금 진보넷 활동가들 활동은 작파하고 글만 쓰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우리도 잘 쓰지도 못하는 글 붙잡고 있으니 활동을 하고 싶어 40호 정도 내고 중단했다. 그 첫 달이 너무 시원했다. 써야한다는 압박도 없고. 사랑방도 그러지 않을까?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은 입장을 버리고 글 쓰는 활동은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매주 쓰고 있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은 인권오름 중간후에도 계속 낼 것이다. 사랑방이 진보적 인권운동의 담론을 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좌담 ②

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 운동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

SNS의 발달과 수용자 중심으로 변하는 매체

명숙: 진보적 인권운동담론이나 매체라는 게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권하루소식이 발행될 때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매체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비마이머니 프레시안이니 참세상이니 진보적 매체도 많이 있다. 앞서 여러분이 매체환경의 변화나 인권운동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의견을 나눠 보자.

강곤: 진보적 매체의 변화가 생각난다. 사상계부터 시작해서 <말>지, <길>지 등의 월간지 시대에서 90년대에 <한겨레21>, <시사저널> 등 주간지가 나오는 시대로 왔는데 그 시대에 <인권하루소식>이 있었다. 일간지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인권하루소식>이 다루면 그걸 <한겨레21>이나 <시사저널>에서 다뤘다.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오마이뉴스>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니. 그리고 누구나 블로그를 할 즈음에 인권운동사랑방은 하루소식을 폐간하고 <인권오름>으로 전환했다. 하루소식에 실릴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다 실리니까 고민이 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추측했다. 개인적으로 오름을 열심히 봤던 이유가 잡지에 글 쓸 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종이 잡지는 원고지 30매에서 40매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글 쓰는 걸

훈련받거나 학자거나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다. 오름에 실린 글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청탁할 수 있겠구나 또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은데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은 없나 싶을 때 찾았다.

낙타: 친구사이도 매달 소식지를 회원 대상으로 발송하지만 거의 보지 않는다. 누적 조회수는 상당하다. 2003년부터 그달그달 회원들이 모인 소식지팀에서 꼭지 구성을 하는데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고민이 많다. <허핑턴포스트>*에 팀 블로그를 만들어서 소식지에 있던 글들을 옮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허핑턴에서 요구하는 글들은 1000자 내외글로 대단히 짧은 글이다. 모바일에 맞게 쓰라는 가이드가 있어 규격에 맞게 분량을 맞춰야 한다. 너무 길어서 필자에게 줄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줄이냐며 형식상으로도 부딪치고 필자들의 욕구와도 부딪친다. 조직에서 원하는 소식지 방향과 필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고민이 많다. 확실히 <인권오름>이랑 웹진이나 소식지가 다르지만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은 비슷한 것 같다.

장여경: 어떻게 해야 읽히는지 고민이 많다. 생산자가 아니라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라 형식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다. 카드뉴스도 만들고 영상도 해야 하고. 활동가 개인으로 보면 글 쓰는 것도 엄청난데 포토샵도 해야 한다. 글도 1000자 넘으면 안 된다고 하고. 1000자 넘어가서 스크롤 압박이 있으면 3줄 요약도 해야 한다. 한편으

론 정책적 역량은 굉장히 높아야 한다. 정책적 깊이가 있지 않으면 충분히 의미가 없다.

강곤: 만약 A라는 활동가가 <인권오름>에 글을 썼다고 하면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가다보니 안 읽게 되는 것 같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평소 활동가들의 생각을 아니까. 그런데 <말과 활>에 누가 글을 썼으면 좀 깊은 글을 썼겠구나 싶어 읽게 된다. 그런 의미로 오름의 조회수가 낮거나 하는 것은 고정 독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가들, 인권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오름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담론을 보기를 원해서가 아닐까. 오름 정도의 담론은 이미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어서 오름의 자리는 없어진 게 아닐까 싶다.

주리: 모바일로 변화된 환경에 맞추는 게 문제인가. 지금 <ㅍㅍㅍ>* 이런 매체들은 모바일에서 보기 편하게 돼 있는데 오름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모바일로 보기 편하게 개편을 하고, 페북 페이지 등을 만들어서 조회 수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서 종간을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낙타: 요즘 다른 매체들이 짧고 휘발성이 있다면 <인권오름>은 중간돼도 데이터는 쌓여 있으니 이 글들을 모아서 계속 회자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매체로서 인권오름은 어땠나

명숙: <인권오름>을 매주 발행하지만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기사의 주간 조회수는 비슷하다. 반면 누적 조회수는 높다.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궁금하거나 인권 관련 글을 쓸 때 오름을 찾아 읽어서 그런 것 같다.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오름을 평가하면서 과연 오름이 매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메시지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되는 방식, 수용자(독자)와의 피드백으로 글의 효과를 확인하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인권담론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돌아봤다. 그런 면에서 <인권오름>은 어땠나?

강곤: <인권오름>이 아카이브 성격의 기능은 있는데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오름에 있었다면 둘이 독립하고 창이 독립하고 영화제가 독립하듯이 오름도 독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으로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특종 같은 게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언론매체로서 가져가는 건 정말 힘들다.

장여경: 지금 <인권오름>의 고민이 형식상의 고민만은 아니지 않나. 형식상의 고민이라면 형식을 개선하면 되지만 지금 그럴 시대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 같다.

강곤: 인권활동가들이 93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에 갔다 오고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만들 때 과제 중 하나가 인권운동의 싱크탱크였다고 한다. 94년도에 그랬는데 아직도 싱크탱크가 없다. 만약 인권운동매체가 어떤 형식이어야 하냐고 한다면 나는 종이매체가 맞다고 생각한다. 워낙 빠르게 매체 환경이 바뀌는 세상이니 차라리 오래된 형식이 낫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물론 <인권오름>에서 활동가들에게 지면을 주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주가 돼야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연구자들이 오름에 필자로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렇게 활동가들이 써낸 글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해석하고 또 그걸 활동가들이 평가하고 분석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강했다. 새로운 부문운동도 생겨나고 새로운 매체도 생겨나고 그랬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터진 걸 막고 후퇴한 걸 막는 게 급하니까, 새로운 담론을 만든다거나 그걸 담을 매체를 만든다거나 하는 여력이 없는 게 아닐까. 모든 운동이 그런 거 같다. 그리고 아까 여경이 말한 것처럼 자유권에서 형사처벌주의를 다루려면 편집위원회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장여경: 요즘은 언론들도 사설을 영상으로도 낸다. 강곤이 얘기한대로 글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이긴 한데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형식보다는 내용인 것 같다. 자유권의 형사처벌주의 등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만

은 아니고 체제량도 관계있는 문제이다. 결국 운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사랑방이라는 한 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운동 전반적으로 잘 못하는 측면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때는 더 급진적으로 인권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도적 틀과 긴장도 하고. 그런데 2008년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자유권 분야에서 여러 후퇴조치들이 나왔는데 그걸 대응하기에 급급했다. 유엔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권담론을 재구성하고 싶었던 게 이상이라면, 현실은 유엔에서 선언된 문구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다.

강곤: 정기성이 중요한 시대는 간 거 아닌가 싶다. 종이라는 것에 얽매이면 재정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정기성이라는 것에 붙잡히면 힘들 수밖에 없다. 과거 80년대 팜플릿처럼 주간이나 월간 같은 정기성은 놓고 가도 되지 않을까. 어디선가 이것에 목마른 활동가나 집단에서 더 새로운 고민들이나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다.

장여경: 강곤은 담론 자체를 성찰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전문가들이나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인권운동이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법이나 제도 영역으로 확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얘기가 되기 전에 제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싸울 때는 법제도 담론하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당위를 강조하게 됐던 것 같다. '워가 정치적으로 옳으냐'를 주로 얘기했다. 당신

들이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게 옳다, 이 길로 가자, 그런 글들을 많이 썼다. 그런데 이제는 형식적인 수용성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도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어둡한 길에 CCTV가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 두려움을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에게 옳음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오름 중간 이후, 운동과 매체가 고민할 것들

명숙: 끝으로 <인권오름> 중간 후 인권 매체에 대한 고민이나 인권운동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나눠보자. 소수자운동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안이나 고민도 나누면 좋겠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다.

낙타: 사실 성소수자 의제는 작은 언론들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문제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 접촉할 수 있는 끈들이 생긴 거 같다. <오마이뉴스>처럼 개인이 기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시스템이 생기기도 했고 굳이 언론을 통하지 않아도 자기가 글을 생산하는 통로들이 다양해졌다.

주리: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쪽지를 연재 중이었는데 <인권오름> 중간한다는 소식 듣고 중간하기 전에 빨리 내자고 얘기했다. 최근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발행하는 <요즘 것들>이라는 청소년신문이 종이신문

과 웹으로 나오고 있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요즘 것들>이랑 오름은 다르다. <요즘 것들>은 대상 독자가 청소년 대중이고, 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인권오름>은 인권활동가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고민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는 글이라는 느낌이다.

강곤: 2000년대에는 무슨 책을 내도 3000권이 팔리던 시대였다. 무슨 책을 내도 그 정도는 팔리는 시대라 인터넷서점에서 삼천 결사대라는 말도 나왔다. 지금은 초판 5백부 찍기도 버겁고, <인권오름>도, 성명서도 별로 안 읽는 시대다. <인권하루소식> 이전 시기였던 80년대 한국의 인권운동 상황이 어땠는지는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알기가 어렵다. 시기별 인권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걸 알려면 일간지나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가 참고가 된다. 근데 94년, 95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를 보면 모든 출처가 하루소식이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인권운동매체로서 어디서든 반드시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허핑턴 포스트>처럼 단체의 의미 있는 글들을 모아내는 역할만 해도 소중한 작업이지 않을까.

주리: 운동을 시작할지 얼마 안 된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인권오름> 같은 매체가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과거의 일들을 알려면 찾아봐야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활동가들이 기고하는 오름이다. 이를테면 '유서대필사건'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나

무위키 같은 데를 찾아보는 거랑 <인권오름>을 통해 그것에 대해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다르다. 오름은 그런 측면에서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아카이브로써 의미가 있다. 활동가들이 소통하는 장인 매체와 대중 독자를 염두에 두는 매체는 다르다. 그럼에도 대중들에게 읽힐 수 있는 글과 매체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엔 두 가지가 같이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여전히 활동가들의 공론장이나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건 중요하다.

낙타: 인권운동의 매체를 고민할 때 염두에 두는 게 의제나 이슈에 대한 시장화이다. 이를 경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글을 쓸 때 시장성이나 대중성을 고려한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나중에 매체나 아카이브를 만든다면 시장성이 없을 것 같은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 각 영역별 단체는 이슈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신고, 사랑방에서 새롭게 매체를 만든다면 의제 자체에 깊이 있는 글들을 써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여경: 공동의 공간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분명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 인권운동 자체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매체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운동 자체가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바꾸는 거하고 멀어질 수 있겠구나 싶다. 매체를

통해 대중하고 소통하는 인권운동이 어떠해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대다.

*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는 2005년 창간된 미국의 인터넷 언론으로 소셜 저널리즘의 선두주자로 거론된다. 2014년부터 한국어판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사용해 <허핑턴포스트>의 기사를 연동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사나 폐북의 글을 여러 개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사도 많다.

** <PPSS>(PPSS)는 인터넷 잡지(큐레이션 매거진)로 2012년 12월 만들었다. 전문성, 객관성, 유머를 모토로, 각 분야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필진의 글을 편집, 큐레이션하여 제공한다. <허핑턴포스트>처럼 원문의 글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짧게 글을 보여주고 글을 연결(링크)하는 방식이다.

인권오름은 나에게

동료들이 전해준 이야기

인권오름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함께 쓰고 읽으며 인권오름을 지켜준 인권활동가들, 독자들이 있습니다. 인권오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인권오름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동료들이 전해준 메시지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윤경

감수성 충만하게 해주었던 벗. 내 우물에서만 해매지 않게, 나와 우리를 연결해주던 중매쟁이. 웅얼거리는 작은 소리도 담아내려 애써준 사람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비파나

인권오름은 나에게 알람~~~ 놓치고 있는 것, 미처 생각 못했던 것, 다른 이들의 고민을 알려줬어요. 고마웠어. 인권오름!! 멋진 컴백을 기원합니다~~~

강소은

23살이 된 지금, 제가 인권오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사회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낮은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됨과 동시에 인권오름과 같은 매체는 저에게 정보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오름은 지금까지 메일로 구독을 하면서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이 사회와 부딪히고, 싸우고, 고민해왔던 기록입니다.

장병권

튼튼한 무지개 빛 원고지였다. 언론매체들이 꺼려하는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그 어느 곳보다 먼저 인권오름에 실을 수 있었고 보편적 인권의 한 축으로 자리하는데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인권하루소식부터 인권오름까지 자기들의 골골한 세상 담기가 저에게도 다양한 목소리들에게도 자신감을 얻는데 큰 힘이 되었

답니다!)

오은정(일본세사모)

동대 같은 존재지요. 인권을 이야기하는 건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에겐 참 어려운 일 같았어요. 416세월호를 겪으며 알게 된 인권오름. 저와 같이 평범한 아줌마로 세월호 운동을 이야기하던 김연지 님의 글이 생각납니다. 어려운 먼 이야기 같았는데... 인권오름을 통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권리와 책임을 느끼고 깨달아 갔습니다. 중간된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외국에 사는 저도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판은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하니 안심이 되네요... 더 많이 생활에서 주변에서 다가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인권운동의 떨리는 거울이었다

RainySun

반가운 목소리였고 숙제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어. 그 촘촘한 수고들에 충분히 조용하지 못한 채 작별하지만 또 다른 만남에 두근거릴 거라 굳게 믿지... 안녕! 안녕? 같이 '우리들'의 뉘소리를 엮어주는 당신 :)

조영관(이주민센터 친구)

꼭 알아야 할 것, 꼭 보아야 할 것, 꼭 물어야 하는 목소리를 전해준 신문.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나에게 자극을 주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곁에 없을 것이라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이며, 저 또한 곁에 두고 싶은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혹시 중간을 통해 그런 자극을 주시려나 할까요? 알뜰 섭섭합니다. ^^

홍고훈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과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는 메세지!!!

유라

자원활동가 시절에 인권오름에 실을 글을 쓰는 것이(몇 번 안 되긴 하지만) 나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인권오름 글은 왜 그리도 쓰기가 힘들었지.. 나와 비슷한 이유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대부분의 필자들이 쉽게 써내려갈 수만은 없었을 거라 짐작해봅니다. 그렇듯 많은 이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인권오름이었기에 잘 떠나보내주고 싶습니다. 잘 가시게나.

김은진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을 일깨워주던 각성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은두(천주교인권위원회)

부러움? 부지런함? 이랄까요.. ^^ 매주 편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일주일마다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주제 발굴하는 것도 게으른 편집자로서는 부러운 소식이었

습니다. 중간하는 것도 부럽구요ㅋㅋㅋㅋ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읽기가 좀 더 어려웠을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네요. 저한테 지면을 주셨던 것도 감사드리구요. 중간 파티에는 못 가게 됐지만, 고맙다는 말을 적어봅니다.

승짱

생물이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잘 읽어왔는데 참 아쉽네요. ^^

한날(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들' 상임활동을 시작하기 전, 인권운동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언젠가쯤, '인권'을 주제로 한 글쓰기가 너무도 어색하고 서툴던 어느 날, 인권오름에 처음으로 제가 쓴 글을 실었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 읽어보니, 끝까지 읽지도 못하겠네요. 부끄러워서ㅠㅠ)

인권오름이 중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권운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애가 무슨 생각하며 인권운동하고 있나'를 인권오름이 꼭 지켜봐준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는 내내 글쓰기는 늘 고역이었고, 지금도 고역인데, 그래도 불필요한 '검열'없이 제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지면이 인권오름이었습니다. 글로 붙잡아두지 않으면 흩어져버릴 고민들을 묶어준 것도 인권오름이었구요. 인권오름에게 '인격'이 있다면,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을 준비하거나, '이 문제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때 참고할만한 글들을 볼 수 있는 '공간'같은 곳이 또한 인권오름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오름이 없었다면, 미약하나마 제가 가진 인권관련 알, 관심, 감수성 등은 결코 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권오름에게 '인격'이 있다면, 저는 감을 수 없는 빛을 진 사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인권오름이 중간한다고 해서, 저의 글쓰기가 멈추는 것도, 제가 공부할 곳이 영영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때때로, '아... 인권오름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순간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제 떠나간다는데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쿨하게 안녕을 고합니다. "인권오름, 고마웠다!"

김선미

동아전과였다. 교과서로만 다 알 수 없었던 부분까지 알려주는, 참고서 같은 존재. 너무 나이 티냈나..? ^^;

강희석(나아장애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의 길잡이였고, 인권의 힘을 믿게 해준 고마운 공간이었습니다.

진냥

인권오름은 나에게 가장 자유롭고 즐겁게 글을 썼던 공간이었어요. 영영영 ㅠㅠ 중간이라니 ㅠㅠ 너무 아쉽고 슬프네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버리고 펼치고 모아왔던 그 시간을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오래오래 아쉬울 거 같아요.

강곤

인권의 기록이다.

"소수자로부터 출발한 평등과 인권에 관한 투쟁은 모두 기록의 부족으로 힘겨운 싸움

을 해왔다. 기록에서 타인의 삶을 배우는 이들의 시공간을 넘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 ... 역사는 결국 해석이다. 그리고 해석은 기록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기록은 상처를 위로한다> 중에서

육성철

깨어 있으라 다그치는 죽비였다.

책방 풀무질 일꾼 은종복

낮은 사람을 목소리를 힘차게 들려주는 곳. 사실 열심히 안 읽어서 죄송한 마음뿐. 가끔 보게 되면 어느 신문에 다루지 않는 차분하게 인권 현장을 보여주셔서 기뻐요. 또 인권오름 활동가들을 집회에서 만나면 더 기뻐요. 새로운 날개 짓에 힘을 실어 주고 싶어요.

김지옥

인권 소식을 다양한 시각에서, 명료하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던 매체였습니다! 떠나 보내고 싶지 않네요 ㅠㅠ

바른들

오잉? 몇 년 뜸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인권오름을 읽어보는 독자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 아님 나만 그런 걸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게 됩니다. 국가와 자본과 기득권이 저지른 악행들이 어떻게 처벌 받는지, 더 밝혀진 사실들은 없는지를 찾아 읽습니다(음.. 그리고 보니 우리 삶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 받는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 삶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하니까요). 수많은 기사들을 읽다보면 어느 샌가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 이야기'는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중 인권오름은 우리 이야기를 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챙겨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떠나 보내야 하다니요.. ㅠㅠ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읽고 싶은 매체 하나를 떠나보내려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오름~

안태호

2010년 인권오름에 감사하게도 안태호의 인권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연재를 했습니다. 스스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시간의 무게가 새삼 느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산주민

광통앵이다!!!!!!!

미정

인권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중간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앞으로는 어디서 이런 다양한 인권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 걱정이 조금 앞서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글 올려주셨던 활동가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

문정현(평화바람)

그만한다는데 무슨 말을 보태겠습니까. 수고했다고 그렇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가톨릭워커스라는 신문도 있는데,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꾸준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도 욕심이겠지요.

한가람

인권오름 중간, 너무나 아쉽습니다. 매주 반강제 잘 챙겨 읽었습니다. 인권오름 통해서 많은 소식 받았고, 많은 생각을 했었고, 참 많이도 배웠습니다. 숨겨진 목소리를 들었고, 소중한 지면을 내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녹우

인권오름은 나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 몸이 늙어 가면 마음도 늙게 되는 걸까요. 인권오름을 떠올리니 지금의 무심함과 무덤과 보수성이 또렷해지네요. 이것만으로도 인권오름은 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처음'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매주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주느라 애쓰는 활동가들에게 고생하고 고마웠노라 전합니다.

다운

인권은 확장되는 것! 대안적인 관점으로 인권의 상상력을 확장해준 인권오름 고마워요. 아쉬워요! ㅠ-ㅠ

엠겐(교육공동체나다)

10대 때 처음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무렵부터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하게 친숙하게 인권오름을 들락날락 하면서 지냈어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건.. 인권오름에 글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믿을 만한 이들의 사려 깊은 성찰과 고민의 결과물들을 꾸준히 접하고 살아왔던 덕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많이 배웠고 너무 고마웠고 수고 많았어요!!

김대식

하두 세상이 말세다 보니 후안무치한 무리가 판치지만 조금의 양심과 인간성을 되찾으려는 단체가 있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건만.. 역시나 아만의 동토에서는 건디기 힘들었구만.. 부디 가더라도 초심만은 잃지 말아주세요.

도연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의 인권 운동을 만나고 장애인 운동과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게 고민을 던져준 인권오름의 중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경험을 나눴던 꼭지에서는 활동하는 지역에서 의회되는 인권교육을 준비할 때 실마리를 얻고 했습니다. 가을부터 밑줄을 치며 읽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중간 소식을 접하니 당혹스럽습니다. 인권오름과 같이 인권활동가의 진솔한 글을 접하고 사안에 따른 인권운동 차원의 입장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재정 때문에 중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인권오름이 배달될 때마다 그 아래쪽에 후원 안내가 있었는가? 왜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보며 인권오름을 만들어 온 활동가를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미안한 마음이 뒤늦게 참 큼니다. 10년 넘게 인권오름

을 만들어 오신 활동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한편으로 염치없지만 인권오름과 같은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어 줄 소식에 대한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여러 각도에서 장애인 운동을 짚어보며 고민을 풍부하게 해주었고 다양한 인권운동의 고민과 소식 그리고 사안에 따른 인권운동의 입장을 전해주며 제게 진중함을 더해준 '인권오름'의 중간에 아쉬움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박진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리할 때 '이런 방향은 어때요?'라고 물어주던 오름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군요. 이별은 아쉽지만 잘 배웅할게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사랑방 친구들.

김현정

인권교육의 장이었다~

SUE

활동을 처음 시작하고, 인권에 대해 하나를 알아갈 때쯤 인권오름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바빠도 인권오름은 다 챙겨보려 했고 받아보는 소식지 중 가장 열심히 읽었다. 내게 다양한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요즘은 정말 바빠서 소식을 종종 놓쳤는데 그 사이 막을 내린다니 정말로 아쉽다. 원가 시즌2 같은 게 있겠지? 라고 슬그머니 기대하며!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현석(에너지정의행동)

매번 원고 청탁을 통해 에너지와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어준 매체였습니다. 중간한다니 아쉽네요.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루인

늘 많은 것을 배우고 저의 무지를 깨닫는 지면이었네요. 아울러 인권오름에 글을 쓰며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은 성장했다고 믿고요. 발행은 끝나지만 인권오름 페이지 자체는 없애지 말아서, 계속 오래오래 다시 찾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정말 가는 거니? 정말 가야만 하는 거니? 그래, 그렇구나. 너와의 이별로 인권하루소식으로 시작된 인권운동의 한 시대가 저무는구나 싶네. 그동안 인권담론을 버리고, 인권이론을 세우고, 인권운동들의 나뭇목이 되어주고, 확장지킴 인권교육과 청소년운동의 목소리를 담아주어 고마웠다. 너가 어두운 밤길 내리막을 걸으며 혼자 할거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인권오름아, 안녕~

나라

인권과 연대를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에요.

배정학(장수마을 주민협의회)

인권오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는데 중간을 한다니 아쉽네요. 인권운동이 우리사회의 인권을 억압당했던 사람들에게 집중

했던 만큼 지역사회에서 인권운동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동안 인권오름을 만드느라 고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하루소식에 이어 인권오름은 나에게 인권의 역사저장소이자, 소식통이자 가끔은 나침반역할도 해준 매체였어요. 인권오름이 영원히길 바랬던 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인권오름이 11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인권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인권운동은 기록해야 하겠지요? 인권운동의 주요 이슈와 흐름과 분석의 좋은 글들이 모이는 저장소를 또 어떤 방식으로든 기대하게 되네요.

나위

반가운 메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공 쓰느라 공공거리느라 힘들었지만(이룸이 썼던 곡지가 공!)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 내준 고마운 인권오름입니다. 중간한다니 아쉽지만 긴 시간 고민한 결정일 테니. 이제..... 안녕!

김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녹색당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인권이야기에 무엇이든 써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셨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누군가 발언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인권오름"은 그런 고마운 곳입니다. 중간을 한다니 아쉽네요. 그러나 "인권오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누군가 이어서 하리라 봅니다. 그간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딸기

한참 광정에서의 투쟁이 격화 될 때, 인권오름에 연재를 했었는데, 투쟁 현장에서는 활동을 외부로 전달하는 통로였고, 그 기회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언니네트워크

인권오름은 언니네트워크에게 함께 오르는 산 같았습니다. 성차별, 가부장제, 이성애 중심주의 - 가시 많은 덩굴숲에 둘러싸여 페미니스트로서 그것들을 헤쳐 나가느라고 보지 못했던 다른 숲들, 다른 색의 나무들, 바위를, 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인권에 대한 고민들을 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니다. 때로는 다른 활동가들의 고민이 채찍질이 되기도 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내려주는 동아줄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각을 보여줄 수 있었던 독자적인 공간, 언니네 운영중단 이후에 특히 인권오름은 언니네트워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말할 공간을 주는 귀한 곳이었습니다. 언니네트워크가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산 중턱 마루를 내어준 인권오름에 감사합니다. 매체의 변화를 타고 운동의 이슈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움직이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동의 이슈를 잡고 더 날카롭고 더 묵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행동을 할 것인가는 언니네트워크 역시 늘 고민입니다. 인권오름과 안녕하는 지금 그동안 인권오름을 만들어온 모두 안녕하시길, 앞으로도 다시 새로운 안녕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간지나 TV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싸움과 버팀, 눈물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싸움을 뒤늦게 검색하거나, 자료를 찾아보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검색 창 맨 위에 인권오름에 실렸던 소식들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채널로, 다른 방법으로 만나요.

레고(한국레즈비언상담소/서울인권영화제)

꾸준히 들여다보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갖고 넓게 들을수 있었던 곳!

준민(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인권하루소식에서 인권오름으로 틀과 내용을 바꿨을 때, 인권이란 달콤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쏟아지는 매체들의 다양한 글들 속에서도 인권오름에 담겨진 묵직한 글들도 따뜻하고 또 가끔은 냉철한 글들은 "인권"이란 것이 우리 일상에 늘 함께 해야 하는 가치임을 알게 해주었지요. 소소한 듯 보이지만 큰 울림을 주는 글들을 통해 늘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되겠다는 디테일한 자기반성도 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약속을 지키며 발간해왔다는 것에 모든 집필자들과 사랑방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아쉬움이 크지만 또 다른 공간에서 이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겠지요. 독자로서...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어쩌다 메일링 받게 된 사람

주의, 주장, 견해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믿음만한 시선

김명수

하루하루 생활에 찌들어있는 내가 메일로 인권오름을 받아보며, 이런 아픈 일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좋은 세상으로 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를 깨우쳐 주곤 했습니다. 모든 기사를 전문을 꼼꼼히 읽지 못할 때가 더 많았지만,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중간한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인권오름을 만들기 위해 지새웠던 활동가들의 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인권오름이 중간된다니 굉장히 아쉽습니다. 주마다 오는 글을 보고, 인권과 사회의 현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병역거부자로 살고 있는데,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인권오름의 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공현

꼭 읽고 싶은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 이야기인데 메이저 언론에서 실어줄 것 같지 않을 때, 인권오름은 꼭 외면하지 않고 실어줄 것만 같은 그런 매체였다. 기획을 했는데 실을 곳이 없어 무산될 일 없게 해주는, 튼튼한 최후의 보루였다고 할까? 또한 내가 수감되어 있을 때도 수감 중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다.

변정운

부족한 내 인권감수성의 회초리

이중희(희망을만드는법)

현재 인권운동에서의 쟁점, 달론 등을 매일 하나를 클릭함으로써 접하게 해주었던 매체였습니다. 중간'한다니 아쉽네요. 그 전에 더 열심히 읽을 것을... 그래도 앞으로 종종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인권오름은 중간하더라도, 인권달론은 더 널리,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차

인권오름은 제게 세상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매체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힘들어했던 문제와 관련해 큰 힘과 위로를 주기도 했지요. 이렇게 떠난다니 아쉽고 슬프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 속에 고맙고 소중한 매체로 남아있을 거예요!

김현주

주사였어요. 끝나면 벌거 아는데 그 직전이 너무 괴로웠을. 그러나 인권오름에 이름을 올려서 영광입니다!

서울인권영화제

있을 때 더 잘할 걸,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가는 벗입니다. 다른 매체가 더 많이 읽힌다 해도, 인권오름에 실렸던 글과 똑같은 수는 없었을 거예요. 현장의 열기를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인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좋은 글벗이었던 인권오름! 그동안 고마웠어요!

KT 새노조

튼튼한 친구이자 비타민이었어요.

권영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오름은 내가 미처 정리해내지 못한 인권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세월만큼, 오래 돼 보이는 인권오름은 그간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살이를 인권의 기준으로 봐왔을까요.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활동하고, 또 글로 세상을 적어 내려갔던 수많은 이들의 고민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독해보이지만, 인권오름으로 조금은 나은 곳에 있지 않나 위로해줍니다. 또 한 발짝 내딛기 위한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제대로 돌보지 못한 화분 같은 존재였어요. 아름다움과 향기를 주었는데, 좀 더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서 뒤늦게 아쉬워하고 있네요. ㅏ.ㅏ

조김재훈

인권이 중하다는 걸 알게 해줌

깡이는

'인권'에 '오름'이라니. 낱말 자체가 나에게 낯설었기에 이렇게저렇게 마냥 써보던 때도 괜히 떠오른다.

곶감 빼먹는 심정으로 읽었던 오름. 나한테는 밥보다는 곶감이었는데, 왜그런고 가만 생각해보니 같은 사건이나 상황이라도 다른 매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해석과 관점을 건네기도 하고, 일상을 뒤집어보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를 들려줘서인 듯하다. 살아있고 반짝이는 사람들의 노력과 투쟁이 담겨있던 오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하면 인권오름을 찾았는데, 그러다 생각지 못한 글까지 건너건너 만나면 뜨거워지는 가슴에 행복했는데, 그 오름이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니 독자로서는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아쉬운 만큼 인권오름 속 사람들과 투쟁을 찾아다니며 만나자 싶다. 만나고 보고 듣고 얘기하고 같이 찾으라고 인권오름이 얘기하는 것 같다.

여태 쓰여진 인권오름, 지나간 그렇고그런 글이 아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렁주렁 달린 곶감이다. 두고두고 빼먹을 곶감이다.

사랑방 팩스신문부터 인권오름까지 함께 일군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주 뜨겁게, 고맙다는 말도.

...
소오름

심야식당 창립멤버, 조승화

인권오름 하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촛불 시작입니다. ㅋㅋ

오오. 인권오름이 2006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 해는 저에게도 뜻 깊은 한데.. 제가 서울 상경하여 비공 관련단체에 처음 들어간 게 2006년 2월이었는데, 어찌 나랑 이 녀석이 단체 활동을 같이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권오름이 이제 송별회를 한다니 뭔가 나랑 활동경력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같이 정리되니 맘도 이해될 듯하고.. 활동의 역량이야 인권오름이 더 훌륭할 테지만, ㅋㅋ 저에게 비공단체의 활동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활동이지만 정말 빈곤한(?) 활동인지라 뭔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순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인권오름에게도 많은 즐거움이 있었듯이 많은 역량의 시간도 있을 것 같아. 11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뭔가 끝난다는 건 뭔가를 위한 시작일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 끝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내는 건 어떤 의미의 아쉬움, 시원함, 그리고 막연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다가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끝내야 시작할 수 있다는 당연한 명제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낼 일 거라고 봅니다. 인권오름의 마침은 어떤 시작을 위한 준비일까요. 그 또한 기대되네요. 나의 새로운 시작에 권투를 빌 듯..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입구에 서있는 또 다른 '인권오름'에 권투를 빌니다.

인권오름에 대한 저의 기억은 원고 부탁으로 진행된 듯해요. 여러 가지 글을 적었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연속기고>한 경험입니다. 연속기고, 내가 어디서 그런 걸 해보나. 영광입니다. 제가 지방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인권오름에서 연락이 왔었죠. 글을 적어 달라고.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거라 글을 적기로 했죠. 고심하고 고심해서 글을 적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좋은 글이 되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너무 고민하며 적은 기억이 나네요. 당시 저에게도 여러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지역에서의 활동만으로, 나의 역량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장, 나의 한계 등등. 이런 고민들을 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꼭 적어야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적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인권오름에 대한 이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걸 활동가들이 보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아닌 듯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활동하면서 드는 생각을 마구 적어도 인권오름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당시 고민들을 글로 적으며 생각도 정

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ㅋㅋ 알른 고만다는 뜻임.

인권오름 만드느라 다들 넘넘넘 고생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원가를 낸다는 고통은, 그 무게감, 잘 감당했습니다. 매주 인권오름 때문에 시름시름 망고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피눈물난 적도 많겠죠. 마감의 피말림으로.. 알른 고생했어요. 이제 맘편히 주주세요. ㅋㅋ

공유정옥

미처 몰랐던 진실을 보여주는 마법거울, 무던 인권감수성을 버리는 스톨, 그리고 제 이름으로 글이 실리면 가문의 영광이었죠.

오두희(평화바람)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활동가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인권오름에서 해 온 일은 우리의 운동을 기록하고 입장을 제시해온 소중한 자료이고 그 자체로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오름이 해 온 일이 정말 소중한데요. 인권오름이 없어 지더라도 1년에 한두번이라도 인권담론을 다루고 이야기 하는 매체가 발행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일

인권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때, 거의 유일한 읽을거리가 있던 책 같았어요. 정소년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여있고,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곳. 가장 날카로운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곳이라 고마웠던 곳인 것 같아요.

박래군

<인권하루소식>의 뒤를 이은 인터넷 신문, <인권오름>이 사라지면 인권매체가 없다는 건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요. <인권오름>이 다하지 못한 숙제를 모두가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1년 동안 각고의 노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매체, 보이지 않는 인권운동의 담론 공간, 미디어 환경의 엄청난 변화... 어느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고민해서 찾아야 답이 나오겠지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허혜영

인권오름을 수많은 인권현장의 목소리들로 채워온 활동가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인권오름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들어갈 활동가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정주연/루트

사실 내게 더욱 익숙한 것은 인권오름의 전신(?)격인 인권하루소식. 인권의 뉴스가 목마르던 시절 매일 아침 팩스로 날아오던 인권하루소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후 인터넷 세상이 되며 나온 인권오름은 활자에 익숙한 내게 처음엔 그리 친근하지 않았던 매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메일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인권뉴스 소식은 클릭하듯 나를 이끌었고 내가 놓치고 있는 인권현장을 알게 해주었다. 한편으론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로서 써야 했던 [인권교육, 날다] 원고 일정은 때론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그곳을 통해 인권교육을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기에 인권오름은 소중한 동료이기도 했다. ㅠ.ㅠ 다시 다른 형태로 부활하려나..? 은근 기대해보며, 아쉬움을 달래본다.. 잘가라~ <인권오름>

배은민

인권오름은 나에게
좋은 선생님.



배은민

김대중

영한 개
인권의 오름을 넘고...



<인권오름> 동간에 -
2016.12.2 지다

현장을 찾아가는 힘!

-이동수

시사만화가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일이 생겨 버렸다.



저 눈부 두 손에 딱든 꼴



고민끝에 결심했다. '일일일단' 하자!



그렇게해서 내가 선택한 인권운동사랑방



주류언론이 신경안쓰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현실을 알리는 일일팩스신문. 그 명맥을 이어 2006년 창간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까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아쉽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만화가로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현장을 찾아가는 힘이다.

내 인생의 인권오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이야기

민선

인권오름을 매듭짓는 지금 복잡다단한 마음을 헤아려보는데, 십년 전 자원활동가로 사랑방을 오가던 때가 떠올랐다. 무너져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를 인권오름 기사로 올렸던 날 원지 모를 벅찬 마음이 들었다. 그전에도 기사를 썼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그 기분은 좀 달랐으나보다. 무어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작'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다. 인권활동가로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 이야기는 아프고 감동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까지 그랬던 건 아니었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니 내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때마다 덮고 일어서는 어떤 '힘'들을 보았고, 그것이 준 자극들이 지금 내 삶의 이정표를 삼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고 첫 마음을 잊어버리며 어느 순간 인권오름은 내게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서 그저 해야 할 어떤 '일'처럼 여겨져 왔다. 1인 편집인 순환 체계에서 편집인을 맡는 이의 역량과 열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인권오름은 부족한 내 역량과 열정을 확인하게 하며 자괴감을 들게 하는 골칫덩이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염두가 나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관성으로 이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고민 속에 인권운동/매체로서 인권오름을 짚어보며 의미와 위치를 보기로 했고, 쉽지 않은 시간을 거쳐 중간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니 인권오름 중간이라는 결정이 어떤 매듭이어야 하는지 질문하게 된다. 새 신발을 마련하기 전에 합부로 헌 신발을 버리면 안 된단던 조언도 들었다. 인권오름의 전신인 인권하루소식이 인권운동사랑방만이 아닌 인권운동의 역사로 생생하게 기억되고 호명되는 것을 들으며 그때 그 힘이 어떻게 붙어질 수 있었나 궁금했다. 운동은 끊임없이 쓰고 말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글과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다. 스무 해를 맞이하며 인권운동사랑방은 말로만 맹목던 '변혁'에 설렘을 담아 다시 공궐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인권오름 중간은 끝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시작하는 길에서 때론 위장거리더라도 단단히 한 발짝씩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인권운동사랑방 안팎의 동료들 덕분이다. 또 오늘의 마침표가 가능했던 건 부족함에도 인권오름 독자로서 자신을 이야기해주던 분들 덕분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훈장

운동이란 것을 시작하며 '말', '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고민하기보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때론 내가 하는 말, 내가 쓴 글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튀어나간다고 느꼈을 때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고집불통에 고지식해서라고 생각했다.

사랑방에 와서 처음 글을 쓸 때에도 그랬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쓰면 된다고 생각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서 잘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을 고쳐나가고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면서 내가 글을 읽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4년에 인권오름 편집인을 하게 되면서 고민이 더 커졌다. 필자들이 글을 보내주고 그 글을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고민하다 보니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운동에서 큰 부분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간 휴직을 하며 여러 곳에 올라온 사람들의 글을 보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또 격한 공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운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잘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잠깐잠깐 고민했다.

사무실에 복귀해 인권오름 중간 논의를 하게 되며 나에게 새로운 고민들이 남겨졌다. 오름이 중간하더라도 다른 인권활동가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전달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어떤 공간을 열 필요성도 느껴지고 그 공간에서 전달할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오름이 중간하더라도 오름에서 만났던 이야기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겨져 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 내가 함께 하면 좋겠다. 할 수 있을 따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름에 애정을 품었던 사람들, 인권활동가로 자신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름 이후가 텅 빈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제 한 발 나가보고 싶다.

'말'에 대해 고민을 남겨준 인권오름, 이젠 안녕!

정록

인권오름 편집인을 하고 싶었는데 중간이라니 아쉽다. 이런 내 소회에 사랑방 사람들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지만, 어쨌든 나의 진실한 마음이다. 요즘은 아니지만, 난 원래 신문이나 잡지 같은 각종 종이 매체를 잘 읽는 편이다. 한때 매일 시청할 수밖에 없었던 '6시 내고향'으로 계절별, 지역별 특산물 현황을 파악하고, 신문으로 여러 영역의 지식을 두루~알파카게 쌓아갔다. '한겨레21'에서 뉴미디어 시대에 전통 언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취재한 기사를 읽으면서 SNS를 하지 않는 나로서는 막연하게 요즘 매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가보다 했다. 온라인 매체인 인권오름 역시 이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 돌아보면 인권오름은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다. 단지 매체 환경의 변화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인권, 인권운동의 변화를 인권오름이 얼마나 담아내 왔는지 돌아본 2016년이였다. 지금 인권오름은 중간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일구어 온 인권오름은 한국 인권 운동의 역사를 들여다볼 소중한 자료로 늘 우리 곁에 있을 거다. 인권오름 만세!

구석진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주최 측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하루소식 취재가 아니라면 인권단체에서는 누구도 가지 않았을 것 같은 자리에도 갈 수 있어서 활동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다. 그냥 '기자'가 아니라 '활동가이자 기자'였기 때문에, 인권운동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기도 했고, 때론 기사 쓰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실을 캐내려고 집요하게 취재하면서 상당한 정보를 획득하기도 했으며(정보 수집의 전투력 향상은 덤), 취재를 하면서 갖게 된 고민을 활동으로 이룰 수도 있었으니 나 스스로에게나 운동에 있어서도 의미가 작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장강의 뒷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듯 흐름과 변화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 인권하루소식을 중간하고 인권오름을 창간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인권오름을 중간하면 매체를 읽는다는 위기감이 작지 않지만, 새로운 흐름을 읽어내고 그 변화된 흐름을 전 취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더 큰 듯하다.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었던 적은 없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 것도 읽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지금, 인권오름 중간은 용기가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 용기에 박수를. (그리고 지금은 박수와 기대밖에 전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디오

인권오름을 알게 된 것에 비해서 그 무게나 깊이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은 무척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권오름에 제가 쓴 글이 게재된 순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어떤 글을 써도 고민은 하겠지만 '이 단어가 맞나? 표현이 적절한가?' 따지도 인권과 인권운동의 관점으로 고민하는 글쓰기는 오름에서만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 무게감을 짊어지고 글을 쓰는 일은 저에게 조금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간을 결정하며 이 짐을 내려놓으려니 시원하기보단 두려움이 덜컥 앞서네요. 이 마음은 뭘까 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저 같은 초짜 활동가에게 오름은 그저 인권 매체가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밑거름이고 모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궈야 할 밭으로 가는 거름인데 내려놓고 가면서 마음이 편할 순 없는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짐을 내려놓은 만큼 더 열심히 제 밭을 일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두려움이나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미류

1년에 걸쳐 떠나 보내온 생인데 막상 마음을 적으려니 멍하다. 나는 무엇을 떠나보내는 것일까? 인권오름 중간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들 놀란 목소리로 정말이냐 되물게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 내게 인권오름은 무엇이었나 되짚어보니 동료 활동가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인권오름을 읽으면, 다 찾아가지 못하는 현장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투쟁의 현장이거나 삶의 현장이거나, 내가 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이란 누추하지만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했다. 그 현장을 지키는 활동가가 글을 쓰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떠올려볼 수 있었다. 어쩌면 단체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내밀한 이야기들도 짐작해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활동으로 바빠 오랜만에 만나게 됐을 때 그이가 겪었을 시간을 미리 헤아려볼 수 있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을 여러모로 돌아볼 수 있었고,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들이 언어를 얻어가는 걸 걸눈질할 수 있었다. 인권오름의 색션 고우성이 점차 모호해지기는 했지만 인권오름 어딘가에서 인권이 솟아오르고 인간의 존엄을 세우고 있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찹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의 나뉘터와 놀이터였다. 아이쿠! 내가 떠나보내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중간 안돼~~~ 라고 외쳐야 할 텐데, 인권오름을 돌아보니 또 다른 것들이 보인다.

인권운동은 10여 년 전보다 훨씬 강하고 넓어졌다. 소수자인권운동의 성장은 확연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며 정체성을 해명해야 했던 소수자운동은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스스로를 조직하고 사회의 차별을 고발하는 대중운동으로 변신하고 있다. 운동사회 안에서 도 스텝이었던 모욕과 차별들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인권의 언어도 찾아간다. 인권운동은 훨씬 다양한 운동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매체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인권오름 중간은 그저 인권오름이라는 매체를 떠나보내는 것이라 믿기로 하자.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오이고 더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인권오름이 창간하며 던진 질문도 같은 것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권문제가 터지니 인권운동은 기자회견에 바쁘고, 땀방울 터지는 문제들 때문에 인권의 소중한 기록들도 묻히기 일쑤에 동료들 만나 수다 떨 시간도 없고, 어디 이상한 말들이 인권인네 하며 인권의 목소리를 오히려 가리고, 정작 팍팍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인권은 여전히 먼 이야기고, 인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10여 년이 흐른 자리는 그대로이기도 하다. 지배권력이 왜곡한 자유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오히려 지탱하는 논리가 되었고 오히려 국정원에 테러방지법을 안겨준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무기를 드는데 거침이 없고, 안전을 내세운 범죄자의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된다. 자본이 위기를 충충이 아래로 전가하며 유유자적 돈 놀음 하느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치달는 분노는 혐오를 만나 더욱 악한 사람들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다. 세계 질서의 재판 과정에서 '북한-인권'이 강대국에 쓸모 있는 핑계가 되어주고 있는데 정작 또 다른 당사국인 '남한'은 자결권을 마-일에 내어주고 있다. 인권오름 중간은 창간이 던진 질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권오름이 부족한 대답이라 그런 것은 아니다.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모여서 어울리고 함께 움직일 자리들이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쉬움이 덜어질 리아 없지만...

나조차도 인권오름 발행단체의 활동가로서보다 인권오름 독자로서 인권오름을 더 기억하고 있으니 그만큼 매체 발행에 공을 들이지 못했음은 송길 수 없는 사실. 인권오름 글을 보내준 이들과 읽어준 이들에게 미안함을 고백할 수밖에. 인권오름 11년을 함께 걸어준 이들에게 빛진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바람소리

무겁다. 24년을 만들어온 인권매체의 끝을 맡은 <인권오름>의 편집인이라 더 힘들다. 창간은 포부와 기대로 부풀지만 중간은 갈등과 미안함으로 쪼그라들어 입도 열기 쉽지 않다. 2016년은 다른 동료 활동가들이 우리의 중간 결정을 매체 발간의 힘겨움을 견디지 못해서 내린 것으로 이해할까 조심스러웠던 시간이었다. 정말 <인권오름> 중간이 다른 운동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찬찬히 1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 <인권오름>이 부족해도 인권매체를 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오락가락하며 결정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려 했다. <인권오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엮여왔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場)을 만들지 않았던가. 특히 견고한 나이주의와 성숙-미성숙의 이상한 논리 한가운데 있는 청소년운동이나 오래된 낙인만큼이나 무관심의 처지에 놓인 HIV/AIDS운동을 하는 이들이 <인권오름>에 글을 보내줄 때 깨달았던 날카로운 인권의 촉들을 기억하기에 더 그랬다.

그러나 한 시대를 마감해야 다른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에, 끝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멈추는 결단이 필요했다. 권력의 폐부를 찔렀던 글도, 몰랐던 인권의제를 알렸던 글도 있었으나 희망버스 등 새로운 방식의 운동과 통치방식의 변화가 미친 영향을 담론으로서 날카롭게 버리지는 못했다. 1년간 매체로서 인권오름을 평가하고, 운동의 현실을 짚어보며 확실히 깨달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써주고 읽어줘서 <인권오름>이 함께 인권의 언어를 버릴 수 있었기에 미안하다. <인권오름> 편집인을 세 번 맡으며 인권운동에 대해 더 살피고 고민했던 시간들, 보내준 글들을 감탄하며 읽으며 배웠던 인권감수성의 시간들이 고단했지만 그 경험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에 더 고맙다. 11년을 발행하는 동안 소수자운동도 많이 성장했고 글을 실을 다양한 매체가 생겼더라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담론을 버릴 수 있었던 곳이 <인권오름>이란 언덕이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미안하고 아쉽다.

11년 동안 함께 만났던 것처럼 잔인한 인권탄탈의 현실에 맞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활동하겠다. 그렇게 진보적 인권운동을 버릴 때 또 만날 다른 무엇이 생기자라 믿는다.

세주

서점에 가서 사회분야 서적을 찾아야만 얻을 수 있을만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글을 매주 인권오름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든든함이 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처음 돌음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권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 하면서도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권오름의 무게에 걸맞는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에 무게감도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더욱이 활동 시작과 함께 회사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현실의 민낯을 좀 더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들을 쓰려고 애쓰느라 밤늦게까지 원고를 작성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아마 인권오름에 글을 썼던 그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글을 쓰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를 받아 편집하는 활동가들의 노고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돌음활동가이기에 인권오름의 편집과정에서 오는 고단함을 직접 겪어보진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인권오름을 편집하느라 매주 고생했던 상임활동가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인권오름이여~ 안녕~~!!

윤미

처음 사랑방 자원 활동가를 시작했을 때 팀 회의에서 오가는 말들이 어려워 해했습니다. 모르는 게 많고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싶은 마음은 크데 아직은 활동가들에게 말 걸기가 부끄럽고 쑥스러워 혼자 인권오름을 열심히 읽은 기억이 납니다. 모르는 단어로 검색도 해보고 예전엔 어떻게 활동했나 찾아보기도 했었지요. 초보 활동가에게 인권오름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랑방에서 내가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 싶던 활동도 인권오름 기사 쓰기였습니다. 또래 자원 활동가들과 기사를 기획하고 당사자분들과 시민단체를 취재했던 게 좋았습니다. 취재 후에 같이 밥 먹으며 인권 얘기, 사랑방 얘기, 고민들 두런두런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기사를 쓰며 단어 하나에 예민해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계속 따져보는 과정이 인권 공부이고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워크숍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인권오름 기사로 내보내고 나서야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임파워먼트(empowerment)로 같이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열고 그 결과물을 인권오름 기사로 내보냈던 한 사이클이 참 보람 있었네요. 인권오름이라는 키워드로 제 기억을 수집하고 보니 저에게 참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인권오름 기사 쓴다고 같이 돌아다녔던 활동가들, 기사 쓴다고 끝물했던 시간들이 그림과 또 고맙습니다. 인권오름 중간을 고민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중요한 기록이고 자료지만 언젠가 인권의 최전선에서 더 강하게 부활하길.

승은

인권오름을 떠나보내며 복잡한 마음이 앞선다. 24년 인권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한 매체를 중단하기까지 논의도 어려웠고 결정은 힘들었다. 한동안 상실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내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어느 노학자의 글을 읽고 나서부터다. 그는 '공부를 하면서 즐거울 때 책을 덮으라'고 조언한다.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공부를 계속 하면 탈이 난다는 것이다. 지지지지(知止止止),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 멈추라는 뜻이다. 공부만이 아니라 세상 이치가 다 비슷하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인권오름을 발행하면서 의미 있는 많은 순간들을 겪어왔다. 인권오름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앎을 열어주고 길을 만들어주었다. 이 모든 것은 글 쓰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10년 동안 인권오름을 함께 만들어준 동료 인권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저 미안하고 고맙다. 여전히 인권오름의 의미를 되새기면 중간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무엇인가를 그만둘 때, 그 다음의 즐거움이 이어진다면, 인권오름 중간 이후에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다른 운동'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그 곁에 인권오름을 같이 만들어준 동료 인권활동가들이 있어줄 거라고 믿는다.

아해

두근두근 인권오름. 인권오름 기사를 클릭! 할 때의 마음을 적으면 이렇게 될까. 다들 앞다투어 고백하는 것처럼, 나 역시 인권오름을 잘 챙겨읽지는 않는다. 다만, 인권오름은 마치 숨겨진 보물창고처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빛나는 글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저 가끔가다, 바늘산을 넘고 얼음바다를 건너 동굴 속 '숨겨진' 보물창고의 문 앞에 서 볼 뿐이다. 그 문 앞에서 잠시 설렌다. 이 문 안쪽에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온몸을 던져 마주했던 인권현실과, 사람들의 상상이와,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들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겠지. 두근두근. 그 설렘을 지닌 채 끼익 문을 열고 들어가 눈앞의 보물 하나를 집어 드니, [웰컴투, 여덟살 구역].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처음 인사 나누었던 활동가들이 적연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겪는 일들과 고민들을 쓰는 꼭지인데, 우와아 눈부셔. 그 활동가들과 아이들이 아옹다옹하며 간혹 서로 할퀴기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참 날카로우면서도 참 따뜻한 이해와 통찰들을 뽕뽕 뿜어올리는 것을 보면, 아, 인권운동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 꼭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봐도 그렇고 저걸 봐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오름에는, 이런 소중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웅처럼, 그저 번쩍이는 보물들을 끌어안고 그 속에 파묻혀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사랑방의 용사들은 이제 이 보물창고를 뒤로 하고 새로운 모험을 하기로 했다. 아니, 이미 하고 있다고 봐야겠지. 그 새로운 여정에서 또 어떤 다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만한 보물창고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한번, 인권오름이라는 허물한 창고에 자신의 빛나는 보물을 하나씩 보태주었던, 그래서 인권오름이 무지개 색 찬란한 보물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눈물나게 고맙다.